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A Study on Strategies and Support Measures for Population Reduction Areas

김동영 김수지 백기홍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연구진 소개

김동영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석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백기홍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34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A Study on Strategies and Support Measures for Population Reduction Areas

김동영 김수지 백기홍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김동영	연구위원	연구총괄, 1장, 4장, 5장, 6장
공동 연구	김수지	전문연구원	요약, 5장
	백기홍	전문연구원	2장, 3장

자문위원	구혜경	전북문화관광연구원	팀장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배진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22U0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할 예정으로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수립이 필요함
- 인구감소가 현존하는 위협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유입과 유출 억제 등 인구감소 대응과 직접 관련된 사업 중심 추진,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지자체는 정주민족도 개선 및 인구활력도 개선을 위한 사업 중심 추진

■ 연구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조사) 유사연구 및 인구동향 분석 선행연구 검토, (조사방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활용한 지수별 조사
- 전문가 자문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
- 현장방문 사례조사 : 인구감소대응 및 인구유입 정책사례지역 방문

2. 결론 및 정책제언

■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비전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의 비전을 “매력공간 창출과 정주민구·체류인구 유입으로 활력있는 전라북도”로 설정

■ 경제활력, 공간활력, 인구활력을 중심으로 추진과제 선정

-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과 체류인구 지역활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활력, 공간활력, 인구활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분야와 생애주기에 맞춰 사업발굴
- 경제활력을 위해 스마트 청년혁신타운 조성, ESG 로컬혁신경영 전문매개자 육성, 전 북형 마을자치연금 마을자치연금발전소 설치운영
- 공간활력을 위해 은퇴자 교육연수센터, 이동마켓운영, 전북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인구활력을 위해 전북형 육아공동체 육성, 전북형 갭이어 ‘전북 인 게버’ 캠퍼스 조성, 전북이주코디네이터 J링커 육성지원, 지역형 문화레지던시 ‘마을에서 동거동락’, 위케어이선밸리 조성

■ 정책제언

-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인구감소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감소가 주된 원인. 전라북도 인구정책은 인유적인 보조금지원을 통한 인구증대정책 보다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증 대하고 도민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이 중요
- [14개 시·군 인구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수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시군별 취약한 지표가 있음. 전라북도 전체의 사업은 물론 14개 시군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시군 인구정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인구감소대응 모니터링체계 구축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관계인구화 및 이주정책 추진]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라북도와 기초지자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이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고향이주 희망자관리와 중장기적 이주지원 필요

차 례

CONTENTS

정책건의	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가. 주요 연구내용	5
나. 연구 방법	8
다. 기대효과	8

제2장 전라북도 인구현황 및 추이분석

1. 일반현황	11
2. 인구현황 및 추이분석	21
가. 인구 및 세대 변화	21
나.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	26
다. 인구밀도현황	31
라. 인구이동현황	33
3. 인구증감분석	36
4. 지수분석 및 시사점	37

가. 과소화마을 분석	37
나. 지방소멸지수 분석	39
다. 인구감소지수 분석	40
라. 시사점	48

제3장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례

1. 인구관련 정책	53
2. 사례	57
가. 홍성 젊은협업농장	57
나. 서천 삶기술학교	60
다. 문경 달빛탐사대	62
라. 거제 아웃도어 아일랜드	65
마. 안산 마을주치의	68
바. 태안 마을연금	68

제4장 인구감소대응 정책방향

1.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73
가. 인구증대정책에서 인구관리정책으로	73
나. 주민등록인구중심 정책에서 체류인구·관계인구 정책으로	74
2. 인구정책의 3가지 쟁점	76
가. 인구규모	76
나. 인구밀도	76
다. 인구구조	78

차 례

LIST OF TABLES

제5장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1. 비전 및 목표	83
2.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84
3. 추진과제	87
가. 경제활력	87
나. 공간활력	101
다. 인구활력	109

제6장 결론

1. 결과요약	131
2. 정책제언	137

참고문헌	139
------------	-----

영문요약 (Summary)	141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1-1] 인구감소지수 선정과정	5
[표1-2] 대상사업 시행 원칙	7
[표 2-1] 전라북도 행정구역별 면적 및 행정 단위	12
[표 2-2] 전라북도 유인도서현황	12
[표 2-3] 용도지역 면적현황	13
[표 2-4] 시도별 주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면적 현황	14
[표 2-5] 도로현황	15
[표 2-6] 주요 교통시설 현황	15
[표 2-7] 주택보급률	16
[표 2-8] 주택보급률 추이	16
[표 2-9] 상하수도 보급률 추이(전국, 전북)	16
[표 2-10] 전북 시군별 관광객 수 현황	20
[표 2-11] 시군별 성별 인구 현황	22
[표 2-12] 시군별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23
[표 2-13] 시군별 인구증감률	25
[표 2-14]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	26
[표 2-15] 시군별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및 비중	28
[표 2-16] 시군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및 비중	29
[표 2-17] 전북 가구원수별 규모 및 비중	29
[표 2-18] 전북 시군별 가구원수별 규모 및 비중	30
[표 2-19] 시군별 인구밀도	31
[표 2-20] 시군별 주간인구	32
[표 2-21] 시군별 청년(19~34세) 순 이동자 수 및 이동률	33
[표 2-22] 전북 연령별 이동자 수 및 이동률	34
[표 2-23] 전북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	35
[표 2-24] 인구증감 요인과 유형	36
[표 2-25] 시군별 지방소멸 지수별 읍면 수	37
[표 2-26] 지수 표준화 방안	41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27] 각 지수별 가중치	41
[표 2-28] 시도별 종합인구감소지수 및 순위	42
[표 2-29] 시군별 종합인구감소지수 및 순위	43
[표 2-30] 전북 시·군별 지수 점수 순위	44
[표 2-31] 범주변수 구간기준	45
[표 2-32] 지수별 범주변수 구간설정	45
[표 2-33] 시군별 지수별 범주 유형	47
[표 3-1] 로컬 쿠폰 가맹점(2021년)	67
[표 4-1] 체류인구 관련 개념정의	74
[표 4-2] 세대별 사업 유형별 정책(예시)	86
[표 5-1] 온라인 과정(안)(18시간)	96
[표 5-2] 오프라인 실습 워크숍 과정(안)(7시간)	96
[표 5-3] ESG 관련 강의 내용 사례	97
[표 5-4] 원격근무(remote work)의 정의	125
[표 6-1] 인구증감 요인과 유형	132
[표 6-2] 전북 시·군별 지수 점수 순위	133
[표 6-3] 사업 총괄표	136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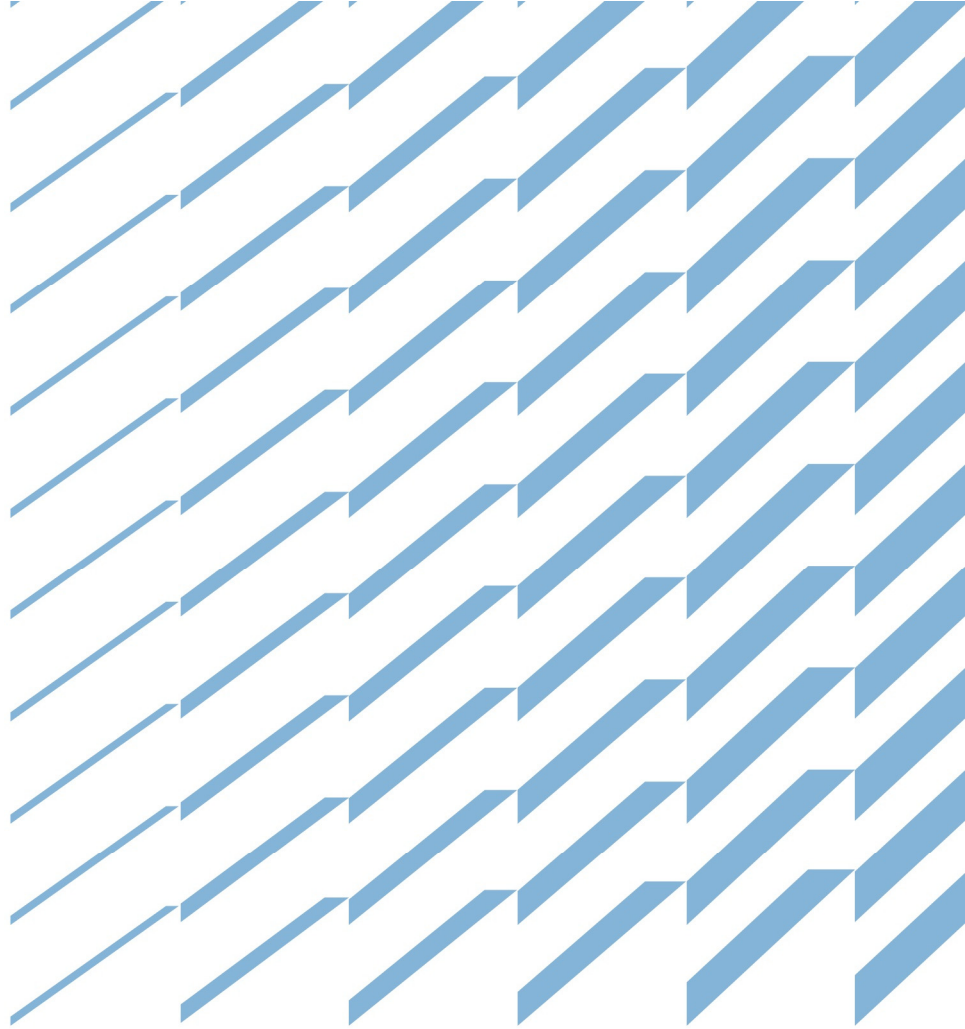
LIST OF FIGURES

[그림 2-1] 전라북도 위치 및 행정구역	11
[그림 2-2] 전라북도 50년 이상 공공건축물 현황	18
[그림 2-3] 전라북도 50년 이상 공공건축물 사용용도 현황	18
[그림 2-4] 전국 대비 전라북도 인구비율 및 시·군별 인구비율	21
[그림 2-5] 전북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추이	24
[그림 2-6] 전북 주민등록인구 구성비(%)	27
[그림 2-7] 시군별 인구증감 유형	37
[그림 2-8] 2016년 과소화마을(인구기준)	38
[그림 2-9] 읍면별 지방소멸 지수	40
[그림 2-10] 지수별 시군별 범주변수	45
[그림 2-11] 전라북도 인구현황을 통한 인구정책 시사점	49
[그림 3-1] 2021 청년마을	53
[그림 3-2] 2021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55
[그림 3-3] 지역사회 통합 돌봄	56
[그림 3-4] 홍성 젊은협업농장	58
[그림 3-5] 마을관계망 구축	59
[그림 3-6] 삶기술학교에서 운영하는 호텔	60
[그림 3-7] 한산 디지털 노마드 센터	62
[그림 3-8] 달빛탐사대 프로그램 과정	63
[그림 3-9] 달빛탐사대 클럽하우스	65
[그림 3-10] 거제 아웃도어 아일랜드 ‘밖’	67
[그림 4-1] 인구정책 방향	73
[그림 4-2] 체류인구의 개념	75
[그림 4-3] 관계인구 개념도	75
[그림 4-4]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비중 추이	77
[그림 4-5] 아령형 국토발전	78
[그림 4-6] 성공한 100대창업가 창업나이	79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5-1] 비전 및 목표	83
[그림 5-2] 김포시 스마트타운 플랫폼 이미지 사례	91
[그림 5-3] 안양시 청년몰 조성 사례	91
[그림 5-4]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운영체계	99
[그림 5-5] 노후준비 필요성 정도	101
[그림 5-6] 노후준비정도	101
[그림 5-7] 완주 한 달 살기	120
[그림 5-8] 완주 한 달 살기	12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20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고 2020년 국가 총인구가 최초 감소하는 등의 국가적 인구감소와 인구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현재 국가적 인구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에 있음
 - 지난 20년간 전국 시군구 중 66%(151개)에서 인구감소를 보였으며, 27%(60개) 시군구는 정점 대비 20%이상 인구가 감소하였음(국토연구원)
 - ※ 인구 5만 이하 시·군·구는 53개('20년)에서 61개('40년), 50만 이상은 13개에서 1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함
 -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원 규모)을 활용해 인구활력 증진사업 뒷받침
 - ※ 교육,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원 지원 확대, 제도 특례 강화 등 과감하고 특별한 지원 시행
 - 2022년 정부 본예산 일반회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을 편성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및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자원 확보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함
- (시책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확충, 교통·물류망 확충 등 시책 추진
- (행·재정적지원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문화·관광·주택·산업 등에 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나. 연구목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할 예정으로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수립이 필요함
 - 법적기준 등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수 개발 및 의견수렴, 균형위 심의를 거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 통계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 한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특색 있는 인구활력 증진 대책 수립
 - 인구에 방점을 두고 일자리, 교육, 의료, 건강, 정주여건 등 관련 사업이 융·복합된 패키지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인구활력 창출
 - 기초-기초, 기초-광역, 광역-광역 등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인구활력 증진 사업의 시너지 극대화
 -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인구, 체류인구 등 생활인구 유치 및 확대 전략을 시행해 전반적인 지역 활력도 제고
- ※ (지역 주도성 강화) 지역 스스로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책임으로 수행
- ※ (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기반한 투자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 ※ (중앙부처) 지역의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빅데이터 분석 등 지원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 제고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 14개 시·군 인구감소지수별 현황 분석

-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인구감소지수의 선정과정과 선정된 지표에 따른 14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수별 현황정리

- 행안부에서 선정한 8개 인구감소 지수를 반영하여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정리

[표1-1] 인구감소지수 선정과정

법적기준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후보지표	최종지표
① 인구감소율 ② 인구감소의 지속성	① 연평균 인구증감률 ② 인구밀도	① 연평균인구증감률(20년, 5년) ② 인구밀도(5년 평균)
③ 인구의 이동 추이	③ 순이동률 ④ 청년순이동률 ⑤ 주간인구	③ 청년순이동률(5년 평균) ④ 주간인구(2020년)
④ 65세 이상 고령인구	⑥ 고령화 비율	⑤ 고령화 비율(5년 평균)
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⑦ 유소년 비율 ⑧ 생산연령인구 비율	⑥ 유소년 비율(5년 평균)
⑥ 출생률	⑨ 합계출산율 ⑩ 조출생률	⑦ 조출생률(5년 평균)
⑦ 재정여건	⑪ 재정자립도 ⑫ 재정력지수	⑧ 재정자립도(5년 평균)

■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방향 설정

- (인구 중심 - 목적성 강화) 인구 유입 또는 인구활력 증진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일자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

- 물리적 공간·시설 구축 일변도가 아닌 인구감소대응 또는 인구활력증진 중심

- 인구활력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사업 패키지 설계
- (가용재원 연계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종잣돈으로 하여 연계 가능한 재원(국고보조, 지방비, 민자 등)을 결집해 중장기의 규모 있는 사업 설계
 - (기금사업) 기금에 지방비와 민자를 활용해 신규 기획사업 발굴·시행
 - (다른 재원사업)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사업, 군특사업 등을 활용 단위사업 구성
- (다양한 연계·협력) 국가-광역시·기초,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등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 생활권 중심 복수 지자체 간 연계·협력,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사업 등
- (지역 주도성·책임성 강화) 지역 스스로 역량을 결집해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해 창의적 해법을 찾아 지역 책임으로 수행
 - 지역 여건분석과 창의적 기획을 바탕으로 주민수요와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지역이 설정한 목표의 측정과 관리를 위한 자체 객관적 성과평가체계 구축

■ 인구감소지역대응 사업 발굴

- (사업 유형) ① 일자리·경제, ② 교육, ③ 입주·정착, ④ 의료·건강, ⑤ 정주여건 개선, ⑥ 생활인구 확대
 - 인구 유입 촉진 및 유출 억제, 인구활력 증진 등 사업 목적에 적합한 분야 선정
 - 지역 특성과 사업간 연계성을 고려해 2~3개 복수 분야의 사업을 결합해 체계적 구성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국고보조사업(투자협약사업), 특례적용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발굴
- (기본 원칙)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구분 적용

[표1-2] 대상사업 시행 원칙

구분	대상사업 시행의 원칙
광역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재원이 집중되도록 계획 수립
	·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기획·시행
	· 관할 기초지자체의 투자계획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기초	· 지역여건 분석, 주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사업 발굴
	· 이해관계인, 지역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거버넌스) 구성·운영
	· 발굴사업의 인구 관련성을 평가해 인구 관련성이 높은 사업 중심 선별 시행

- 인구감소가 현존하는 위험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유입과 유출 억제 등 인구감소 대응과 직접 관련된 사업 중심 추진,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지자체는 정주민족도 개선 및 인구활력도 개선을 위한 사업 중심 추진
 - 지역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요, 주민 수요 등에 부합한 사업 구성
- 소액 다수의 단년도 나열식 사업이 아닌 규모 있는 중장기(5년 이상) 핵심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설계해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 2022년도 기금 배분액을 기준으로 중장기 기금 규모를 추산해 전체 사업 구성
 - 2022년 인구감소지역 수요를 고려해 증액된 보통교부세(1.1조원 규모)와 지방비 가용자원, 민간자본 등을 활용해 규모 있는 사업 설계
- (사업 구성)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발굴된 각종 재정사업을 목표와 연관성, 단위사업 간 연계성 등을 검토해 체계적으로 단위사업 구성

나. 연구 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조사) 유사연구 및 인구동향 분석 선행연구 검토
- (조사방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활용한 지수별 조사
 - 14개 시군별 및 전라북도 전체 현황조사

■ 전문가 자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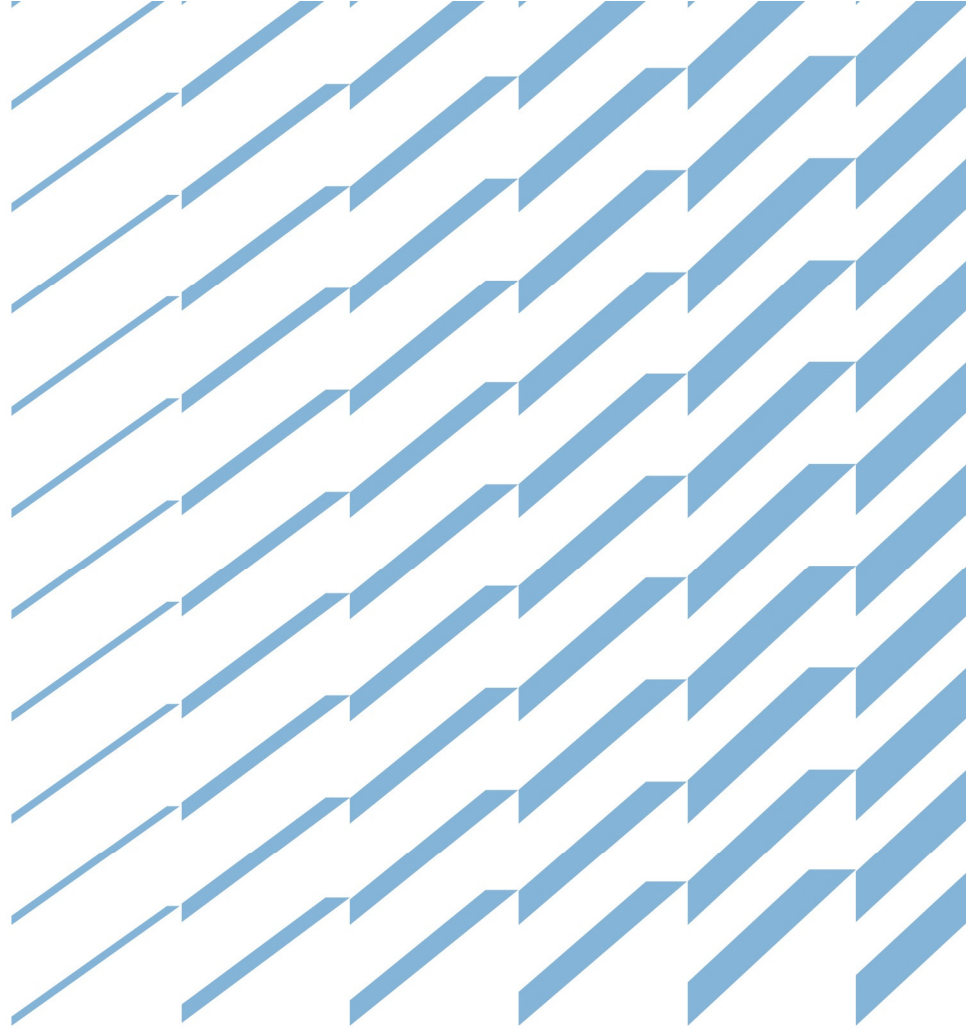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
 - 조사와 분석의 시사점 도출

■ 현장방문 사례조사

- 인구감소대응 및 인구유입 정책사례지역 방문
 - 관계자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다. 기대효과

-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7천억에서 2023년부터 1조원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를 위한 효율적 사업발굴에 기여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은 광역 25%, 시군 75%로 배분될 예정으로 25%에 해당하는 광역사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시도별 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신속대응으로 인구감소 대응방안 제시



제2장

전라북도 인구현황 및 추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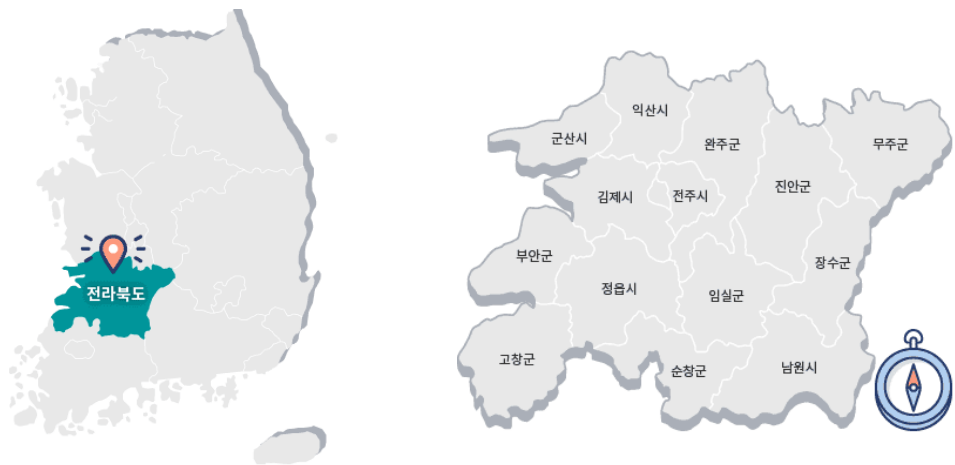
1. 일반현황
2. 인구현황 및 추이분석
3. 인구증감분석
4. 지수분석 및 시사점



제2장 전라북도 인구현황 및 추이분석

1. 일반현황

- 전라북도는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동측으로 소백산맥 능선을 경계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남측으로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남도를 접함



자료 :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

[그림 2-1] 전라북도 위치 및 행정구역

- 전라북도의 총면적은 8,069㎢로 국토의 약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총 14개의 시·군(6시 8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토지이용은 임야가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답 19.3%, 전 8.0%, 도로 3.5%, 대지 2.5%, 기타 10.7%에 해당함
 - 총 6개 시 가운데 5개 시(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하며, 관할구역 면적은 완주군이 가장 넓고 전주시가 가장 좁음

[표 2-1] 전라북도 행정구역별 면적 및 행정 단위

(단위 : km², %, 개소)

구분		면적		구·읍·면·동				통·리·반		
		면적	구성비	구	읍	면	동	통	리	반
전북		8,069.84	100.00	2	15	144	84	2,966	5,255	24,660
인구 감소 외 지역	전주	206.04	2.55	2	-	-	35	1,329	-	7,023
	군산	397.27	4.92	-	1	10	16	497	342	2,766
	익산	506.55	6.28	-	1	14	14	542	584	3,273
	완주	821.12	10.18	-	3	10	-	-	551	1,067
인구 감소 지역	정읍	693.07	8.59	-	1	14	8	230	555	2,160
	남원	752.21	9.32	-	1	15	7	160	343	1,442
	김제	545.87	6.76	-	1	14	4	208	549	1,530
	진안	789.04	9.78	-	1	10	-	-	316	547
	무주	631.78	7.83	-	1	5	-	-	150	463
	장수	533.17	6.61	-	1	6	-	-	214	463
	임실	597.22	7.40	-	1	11	-	-	262	751
	순창	495.83	6.14	-	1	10	-	-	311	654
	고창	607.49	7.53	-	1	13	-	-	564	1,388
	부안	493.18	6.11	-	1	12	-	-	514	1,133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재구성.

- 전북에는 현재 군산시 16개, 고창군 2개, 부안군 7개 등 총 25개의 유인도서가 있음

[표 2-2] 전라북도 유인도서현황

구분	군산시(16개)	고창군(2개)	부안군(7개)
도서명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 대장도, 죽도	외죽도, 내죽도	하섬, 위도, 식도, 정금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자료 : 행정안전부(2018). 재구성.

- 전북의 전체 용도지역(885.6km²) 중 농림지역이 46.4%, 관리지역은 31.7%, 도시지역은 10.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4%로 나타남
 - 전국 용도지역과 비교해보면 전북은 전국보다 비도시지역 비중이 더 높고, 그 중에서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비중은 높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낮음
- 전북의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전주시만 도시지역의 면적이 비도시지역의 면적보다 큼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중 고창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은 농림지역의 면적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2-3] 용도지역 면적현황

(단위: km², %)

구분	용도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	106,204.7 (100.0)	17,769.1 (16.7)	88,435.5 (83.3)	27,309.9 (25.7)	49,256.1 (46.4)	11,869.5 (11.2)
전북	8,129.9 (100.0)	885.6 (10.9)	7,244.2 (89.1)	2,574.7 (31.7)	3,987.1 (49.0)	682.4 (8.4)
인구감소외지역	전주	205.9 (100.0)	197.2 (95.8)	8.6 (4.2)	2.8 (1.4)	5.6 (2.7)
	군산	456.6 (100.0)	207.4 (45.4)	249.2 (54.6)	128.6 (28.2)	118.8 (26.0)
	익산	506.9 (100.0)	76.1 (15.0)	430.8 (85.0)	216.7 (42.8)	192.2 (37.9)
	완주	821.3 (100.0)	150 (18.3)	671.3 (81.7)	137.9 (16.8)	487.2 (59.3)
인구감소지역	정읍	692.8 (100.0)	47.8 (6.9)	645 (93.1)	264 (38.1)	336.6 (48.6)
	남원	752.8 (100.0)	30.6 (4.1)	722.2 (95.9)	276.4 (36.7)	337.8 (44.9)
	김제	545 (100.0)	43.8 (8.0)	501.2 (92.0)	233.2 (42.8)	239.8 (44.0)
	진안	789.1 (100.0)	6.4 (0.8)	782.7 (99.2)	239.8 (30.4)	525.6 (66.6)
	무주	631.7 (100.0)	12.4 (2.0)	619.3 (98.0)	136.4 (21.6)	307 (48.6)
	장수	533.6 (100.0)	5.5 (1.0)	528.2 (99.0)	173.3 (32.5)	337.7 (63.3)
	임실	596.9 (100.0)	18 (3.0)	578.9 (97.0)	211.4 (35.4)	352.9 (59.1)
	순창	495.7 (100.0)	10.1 (2.0)	485.6 (98.0)	146 (29.5)	315.9 (63.7)
	고창	607.8 (100.0)	32.5 (5.3)	575.3 (94.7)	274.6 (45.2)	257.4 (42.3)
	부안	493.7 (100.0)	47.8 (9.7)	445.9 (90.3)	133.7 (27.1)	172.7 (35.0)

자료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2020). 재구성.

- 전북의 주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도로 116.3km², 공원 40.3km², 녹지 5.1km², 학교 21.6km²임

[표 2-4] 시도별 주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면적 현황

(단위: km²)

구분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전국	1,801.8	698.6	204.2	353.4
서울	85.0	51.1	4.8	34.6
부산	56.5	42.3	7.0	16.1
대구	50.3	19.9	4.7	11.8
인천	66.6	47.2	10.0	12.2
광주	35.2	27.3	4.1	9.9
대전	32.8	19.4	2.7	11.1
울산	43.5	34.5	7.0	6.5
세종	30.7	22.3	4.6	5.3
경기	357.2	160.1	60.8	68.2
강원	105.9	24.8	6.1	23.2
충북	99.9	27.8	15.8	18.1
충남	145.1	22.4	16.4	25.1
전북	116.3	40.3	5.1	21.6
전남	148.3	47.3	22.3	23.4
경북	195.1	43.4	14.7	34.3
경남	193.9	58.7	17.5	25.9
제주	39.6	9.7	0.6	6.1

자료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2020). 재구성.

- 전북의 도로포장률은 80.4%로 전국 평균(94.8%)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군도가 63.5%로 포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도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도와 군도의 연장이 각각 2,388km, 2,379km로 전체 전북 연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2-5] 도로현황

(단위: m, %)

구분	연장	포장도	포장률	미개통도	미개설도
전국	105,083,017.0	99,605,417.0	94.8	478.883.0	7,842,925.0
전북	8,567,858.0	6,892,661.0	80.4	1,125.0	725,749.0
고속국도	418,420.0	418,420.0	100.0	-	-
일반국도	1,488,426.0	1,474,062.0	99.0	-	14,364.0
지방도	1,894,578.0	1,583,173.0	83.6	-	110,705.0
시도	2,387,565.0	1,906,730.0	79.9	-	470,690.0
군도	2,378,869.0	1,510,276.0	63.5	1,125.0	129,990.0

주. 2021년도 말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www.rsis.kr/). 재구성.

- 전북의 주요 교통 시설로, 고속철도 노선 1개, 항만 2개, 어항 8개, 공항 1개 등이 있음
 - 고속철도는 익산에 1개, 항만과 어항은 각각 군산에 2개, 8개, 공항은 김제에 1개 운영

[표 2-6] 주요 교통시설 현황

(단위 : 개, m)

구분		항만	어항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전국	개소	294	518	22	14,342	637
	면적	115,862,177	61,355,982	82,933,846	559,131	12,569,992
전북	개소	2	8	1	597	41
	면적	72,467	1,847,468	1,447,081	29,394	277,426

자료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2020). 재구성.

-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110%로, 전국 평균 103% 대비 높은 편이며, 17개 시·도 중 7위로 높음
 -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7] 주택보급률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급률	95	104	102	99	107	98	110	107	100	111	113	112	110	113	115	112	107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표 2-8] 주택보급률 추이

(단위: 천호, 천가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가구수	19,367.7	19,673.9	19,979.2	20,343.2	20,926.7
	주택수	19,877.1	20,313.4	20,818.0	21,310.1	21,673.5
	보급률	102.6	103.3	104.2	104.8	103.6
전북	가구수	724.7	728.9	733.0	738.3	755.6
	주택수	777.8	785.1	802.0	816.1	834.1
	보급률	107.3	107.7	109.4	110.5	110.4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전북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2020년 기준 각 99.6%, 89.7%로 전국 평균보다 상수도 보급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하수도 보급률은 낮은 수준임

- 전북의 상하수도 보급률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2-9] 상하수도 보급률 추이(전국, 전북)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00~10	10~20
상수도 보급률	전국	87.1	90.7	94.1	96.5	99.4	8.0	5.6
	전북	74.4	81.9	91.0	95.6	99.6	22.3	9.5
하수도 보급률	전국	70.5	83.5	90.1	92.9	94.5	27.8	4.9
	전북	42.8	70.8	80.8	85.9	89.7	88.8	11.0

주. 상수도 보급률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인구/총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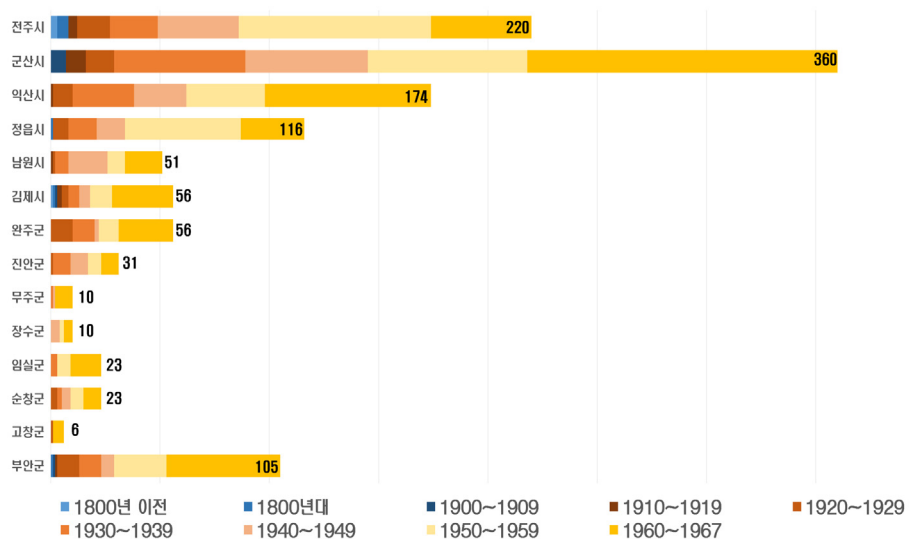
자료 : 상수도 보급률(환경부, 상수도통계, 해당년도), 하수도 보급률(환경부, 하수도통계, 해당년도). 재구성.

- 2017년 기준으로 전북도내 건축승인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은 총 1,241

동이며, 군산시 360동(29%), 전주시 220동(18%), 정읍시 116동(9.3%) 순임¹⁾

- 전체적으로 시단위 지역에서 921동(74%)의 공공건축자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군단위 자치단체 중 부안군이 105동으로 공공건축자산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1900년 이전에는 12동이 존재하였으나, 1950년 이후 783동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의 6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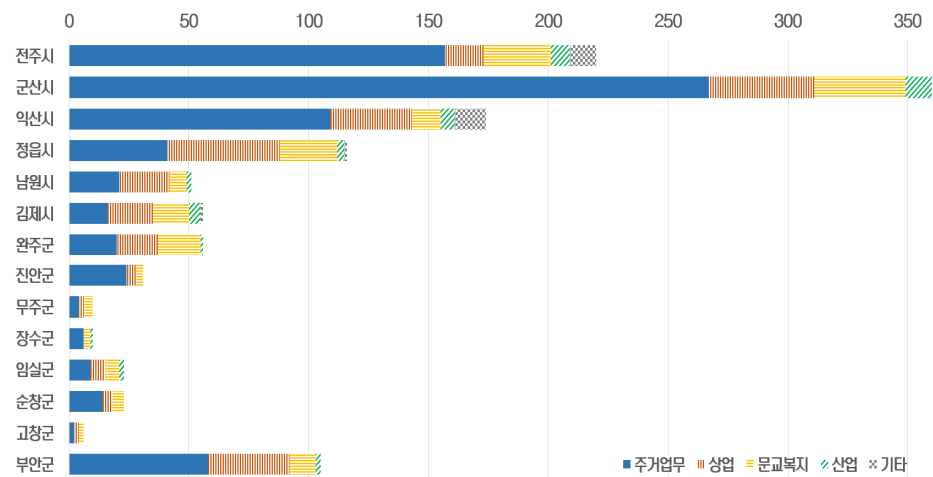
1) 장성화 외(2019). 공공 유허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자료 : 장성화 외(2019).

[그림 2-2] 전라북도 50년 이상 공공건축물 현황

- 사용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업무가 748동(60.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자료 : 장성화 외(2019).

[그림 2-3] 전라북도 50년 이상 공공건축물 사용용도 현황

-
- 전라북도의 관광객은 2017년 36,977천 명 대비 2021년 23,245,033천 명이며, 지난 5년의 전라북도 관광객 증감률을 살펴보면 -37.14%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도내 방문 관광객이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에서 벗어나 관광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시기인 2021년 도내 방문 관광객은 기존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2020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지자체는 군산시(4,148천 명)이며, 반면 장수군(246천 명)의 관광객 규모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5년간(2017년~2021년) 방문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임실군(136.15%), 익산시(29.61%), 군산시(27.61%), 순창군(3.27%)임

[표 2-10] 전북 시군별 관광객 수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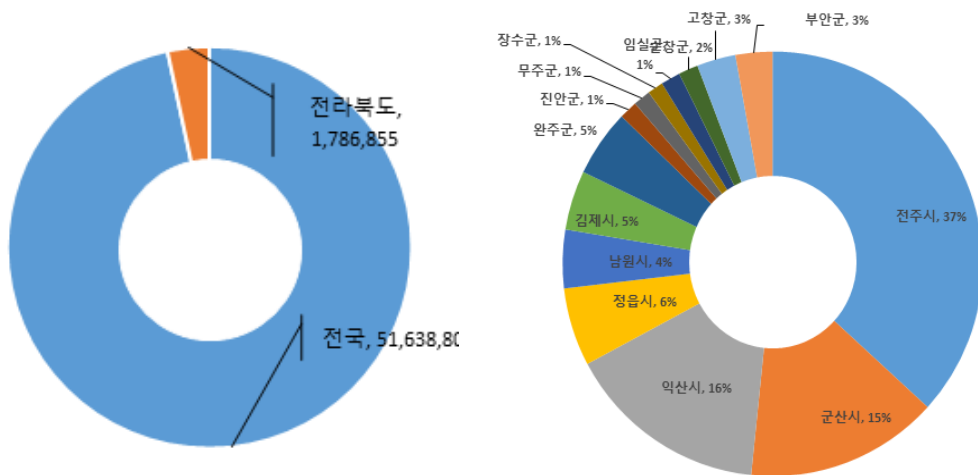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증감률
전북		36,977,069	38,093,016	39,223,684	21,038,783	23,245,033	-37.14
인구 감소 외 지역	전주	2,636,740	3,112,499	3,298,673	1,260,418	2,063,523	-21.74
	군산	3,250,898	5,843,560	6,075,429	4,609,995	4,148,553	27.61
	익산	606,720	841,745	1,153,847	1,027,851	786,399	29.61
	완주	4,000,030	4,040,372	4,235,316	1,332,245	953,633	-76.16
인구 감소 지역	정읍	1,460,168	1,279,747	1,598,499	979,388	1,434,906	-1.73
	남원	5,126,761	5,167,765	5,072,412	2,899,760	3,276,538	-36.09
	김제	1,924,120	1,187,960	1,665,279	316,990	499,286	-74.05
	진안	1,389,508	1,205,928	1,324,602	722,560	742,361	-46.57
	무주	5,195,795	4,384,208	3,607,386	2,522,992	2,581,162	-50.32
	장수	457,724	566,243	510,521	243,897	246,562	-46.13
	임실	673,836	642,019	955,525	853,202	1,591,294	136.15
	순창	1,586,708	1,565,192	1,533,288	1,420,774	1,638,672	3.27
	고창	5,968,330	5,990,018	6,008,494	2,073,288	1,836,202	-69.23
	부안	2,699,731	2,265,760	2,184,413	775,423	1,445,942	-46.44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재구성.

2. 인구현황 및 추이분석

가. 인구 및 세대 변화

- 전라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786천 명으로 전국 대비 약 3.5%를 차지하며 세대는 849천 세대임
 - 전라북도 총 인구의 약 68%가 전주(37%), 군산(15%), 익산(16%)에 분포되어 있음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은 각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4] 전국 대비 전라북도 인구비율 및 시·군별 인구비율

- 전북의 남녀 성비는 남성 49.75%, 여성 50.25%로 비슷한 비중을 보임
 -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은 남성의 성비가 더 높으며 그 외 10개 시군은 여성의 성비가 더 높음

[표 2-11] 시군별 성별 인구 현황

(단위: 명, 세대)

구분	인구계	성별		세대수
		남자	여자	
전북	1,786,855	888,994	897,861	849,001
인구감소 외 지역	전주	657,269	323,427	293,207
	군산	265,304	134,290	122,250
	익산	278,113	138,427	129,962
	완주	91,142	46,845	44,020
인구감소 지역	정읍	106,487	52,892	54,242
	남원	79,431	38,965	39,670
	김제	80,913	40,193	42,509
	진안	24,987	12,667	13,494
	무주	23,748	11,826	12,823
	장수	21,695	10,812	11,584
	임실	26,730	13,692	14,899
	순창	26,855	13,189	13,996
	고창	53,386	26,507	28,757
	부안	50,795	25,262	27,588

주. 2021년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북은 60세 이상에서 전국평균비중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1,786천 명의 전북 인구 중 50대가 298천 명(16.7%), 40대가 259천 명(14.5%)으로 40~59세의 중장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서는 40~59세의 비중이 높으나 그 외 11개 시군은 50~69세의 비중이 높음
 - 특히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의 경우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2] 시군별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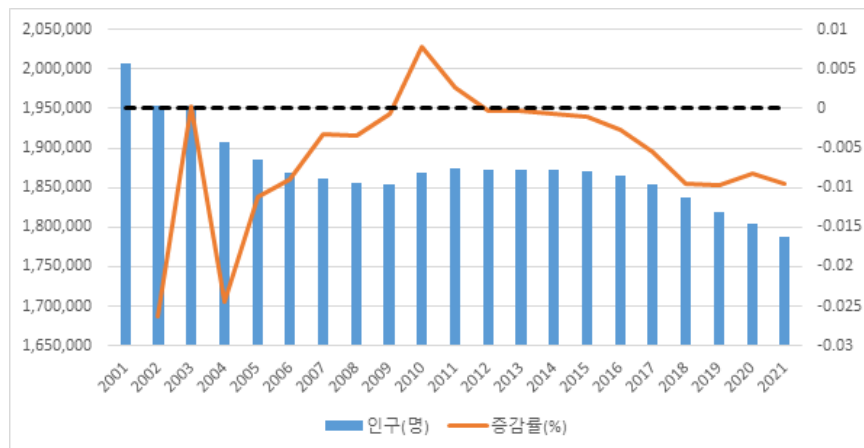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전국		51,638,809 (100.00)	3,760,350 (7.28)	4,709,316 (9.12)	6,655,923 (12.89)	6,723,435 (13.02)	8,166,792 (15.82)	8,635,211 (16.72)	7,164,712 (13.87)	3,715,084 (7.19)	2,107,986 (4.08)
전북		1,786,855 (100.00)	119,673 (6.70)	170,128 (9.52)	206,579 (11.56)	182,181 (10.20)	259,675 (14.53)	298,654 (16.71)	268,393 (15.02)	170,337 (9.53)	111,235 (6.23)
인구 감소 외지 역	전주	657,269 (100.00)	51,443 (7.83)	70,071 (10.66)	92,498 (14.07)	80,960 (12.32)	104,928 (15.96)	107,276 (16.32)	81,129 (12.34)	44,980 (6.84)	23,984 (3.65)
	군산	265,304 (100.00)	19,483 (7.34)	26,150 (9.86)	29,021 (10.94)	29,074 (10.96)	42,523 (16.03)	44,185 (16.65)	39,086 (14.73)	23,380 (8.81)	12,402 (4.67)
	익산	278,113 (100.00)	17,514 (6.30)	27,014 (9.71)	34,997 (12.58)	27,390 (9.85)	40,310 (14.49)	48,537 (17.45)	42,355 (15.23)	24,794 (8.92)	15,202 (5.47)
	완주	91,142 (100.00)	6,324 (6.94)	8,177 (8.97)	8,745 (9.59)	8,842 (9.70)	13,207 (14.49)	15,316 (16.80)	14,830 (16.27)	9,295 (10.20)	6,406 (7.03)
	정읍	106,487 (100.00)	5,840 (5.48)	9,257 (8.69)	10,199 (9.58)	8,394 (7.88)	14,043 (13.19)	18,118 (17.01)	17,772 (16.69)	13,055 (12.26)	9,809 (9.21)
인구 감소 지역	남원	79,431 (100.00)	4,595 (5.78)	7,093 (8.93)	7,320 (9.22)	6,020 (7.58)	10,118 (12.74)	13,595 (17.12)	13,508 (17.01)	9,676 (12.18)	7,506 (9.45)
	김제	80,913 (100.00)	3,874 (4.79)	6,040 (7.46)	6,942 (8.58)	6,196 (7.66)	9,549 (11.80)	13,237 (16.36)	15,081 (18.64)	11,203 (13.85)	8,791 (10.86)
	진안	24,987 (100.00)	1,147 (4.59)	1,619 (6.48)	1,810 (7.24)	1,507 (6.03)	2,536 (10.15)	4,420 (17.69)	5,215 (20.87)	3,729 (14.92)	3,004 (12.02)
	무주	23,748 (100.00)	1,066 (4.49)	1,772 (7.46)	1,697 (7.15)	1,622 (6.83)	2,720 (11.45)	4,122 (17.36)	4,664 (19.64)	3,253 (13.70)	2,832 (11.93)
	장수	21,695 (100.00)	1,025 (4.72)	1,627 (7.50)	1,548 (7.14)	1,400 (6.45)	2,405 (11.09)	3,635 (16.76)	4,394 (20.25)	3,075 (14.17)	2,586 (11.92)
	임실	26,730 (100.00)	1,285 (4.81)	1,574 (5.89)	1,887 (7.06)	1,814 (6.79)	2,664 (9.97)	4,497 (16.82)	5,243 (19.61)	4,200 (15.71)	3,566 (13.34)
	순창	26,855 (100.00)	1,272 (4.74)	2,151 (8.01)	1,906 (7.10)	1,752 (6.52)	3,096 (11.53)	4,387 (16.34)	5,058 (18.83)	3,938 (14.66)	3,295 (12.27)
	고창	53,386 (100.00)	2,454 (4.60)	4,066 (7.62)	4,021 (7.53)	3,574 (6.69)	5,833 (10.93)	8,775 (16.44)	10,130 (18.98)	8,094 (15.16)	6,439 (12.06)
	부안	50,795 (100.00)	2,351 (4.63)	3,517 (6.92)	3,988 (7.85)	3,636 (7.16)	5,743 (11.31)	8,554 (16.84)	9,928 (19.55)	7,665 (15.09)	5,413 (10.66)

주. 1. ()는 구성비를 나타냄 2. 202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전북의 인구는 2010년, 201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으며 2015년부터 감소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 이후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그림 2-5] 전북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추이

- 전북의 20년 인구증감률, 5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모두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타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20년 증감률기준 부안군이 -27.82%로 가장 높은 인구감소율을 보였으며 5년 증감률은 고창군이 -11.72%로 가장 큰 인구감소율을 보임
- 지난 20년 간 전주시(5.25%)와 완주군(7.70%)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난 5년 간 전주시(1.28%)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주시 또한 20년 증감률 대비 5년 증감률이 감소하여 인구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표 2-13] 시군별 인구증감률

(단위: 명, %)

구분	2002	2017	2021	20년 증감률	5년 증감률
전국	48,229,948	51,778,544	51,638,809	7.07	-0.27
전북	1,953,846	1,854,607	1,786,855	-8.55	-3.65
인구감소 외 지역	전주	624,485	648,964	5.25	1.28
	군산	272,007	274,997	-2.46	-3.52
	익산	330,101	300,187	-15.75	-7.35
	완주	84,626	95,975	7.70	-5.04
인구감소 지역	정읍	139,133	113,776	-23.46	-6.41
	남원	100,392	83,281	-20.88	-4.62
	김제	110,989	86,926	-27.10	-6.92
	진안	30,439	26,271	-17.91	-4.89
	무주	27,894	24,809	-14.86	-4.28
	장수	26,349	23,003	-17.66	-5.69
	임실	35,071	30,162	-23.78	-11.38
	순창	32,329	29,698	-16.93	-9.57
	고창	69,657	60,472	-23.36	-11.72
	부안	70,374	56,086	-27.82	-9.43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2020년 기준 전북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은 3.38%이며,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외국인 인구가 다소 감소한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전주시는 2020년에도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였음
- 2020년 기준 시군별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을 살펴보면 완주군이 5.93%로 가장 높고 정읍시(4.95%), 김제시(4.72%), 장수군(4.67%), 고창군(4.06%) 순으로 높음
 - 전주시의 외국인주민 비중은 2.30%로 가장 낮으며 무주군(2.98%), 남원시(3.11%), 익산시(3.33%), 임실군(3.60%) 순으로 낮음

[표 2-14]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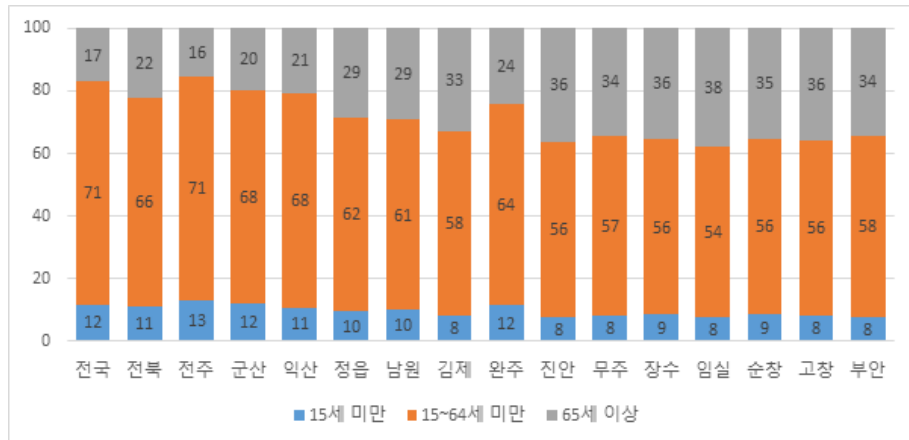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외국인주민 비중1)
전북		45,836	49,840	55,940	62,151	60,872	3.38
인구감 소 외 지역	전주	10,179	11,457	12,934	14,733	15,348	2.30
	군산	8,498	8,454	9,391	10,539	10,364	3.85
	익산	7,500	8,518	9,290	9,874	9,490	3.33
	완주	3,605	4,100	5,392	6,101	5,681	5.93
인구감 소 지역	정읍	3,760	4,055	4,662	5,354	5,287	4.95
	남원	1,969	2,135	2,321	2,573	2,428	3.11
	김제	3,095	3,281	3,602	3,942	3,766	4.72
	진안	775	901	919	1,012	937	4.01
	무주	579	649	683	709	676	2.98
	장수	860	913	965	1,003	976	4.67
	임실	861	998	1,024	1,032	940	3.60
	순창	831	916	959	1,055	1,015	3.82
	고창	1,789	1,923	2,108	2,252	2,135	4.06
	부안	1,535	1,540	1,690	1,972	1,829	3.71

주. 2020년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나.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

- 전라북도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4세 이하 유소년 비중은 11%, 경제
활동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비중은 66%,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22%임
- 전국 평균 대비 유소년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낮고 고령인구 비중은 높게 나타남



주. 202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그림 2-6] 전북 주민등록인구 구성비(%)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유소년(14세 이하) 인구는 203천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시군은 순창군(-25.65%)이며 임실군(-24.82%), 완주군(-20.99%), 익산시(-20.91%), 진안군(-20.71%)순 임
- 전라북도의 유소년(14세 이하)비율은 5개년 평균 12.09%로 전국 평균인 12.48%보다 낮음
 - 5년 평균 기준 전라북도 내 유소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13.71%), 군산시(13.18%), 완주군(12.84%), 익산시(11.83%), 남원시(10.72%)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부안군(8.36%), 임실군(8.38%), 진안군(8.41%), 고창군(8.58%), 무주군(9.02%) 순임

[표 2-15] 시군별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및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비중
전국		6,785,965	6,628,610	6,466,872	6,307,659	6,124,546	12.48
전북		237,193	228,427	219,684	211,829	203,363	12.09
인구 감소 외 지역	전주	92,776	91,096	89,708	88,404	86,089	13.71
	군산	38,547	37,127	35,563	34,090	32,738	13.18
	익산	38,377	36,166	34,032	32,019	30,353	11.83
	완주	13,478	12,742	11,799	11,187	10,649	12.84
인구 감소 지역	정읍	12,564	11,991	11,456	10,796	10,273	10.34
	남원	9,475	9,160	8,719	8,397	7,936	10.72
	김제	8,575	8,088	7,680	7,238	6,808	9.14
	진안	2,405	2,281	2,151	2,062	1,907	8.41
	무주	2,399	2,310	2,177	2,117	1,967	9.02
	장수	2,309	2,247	2,063	1,976	1,868	9.29
	임실	2,776	2,623	2,397	2,157	2,087	8.38
	순창	3,080	2,942	2,756	2,585	2,289	9.59
	고창	5,454	4,999	4,751	4,574	4,365	8.58
	부안	4,978	4,655	4,432	4,227	4,034	8.36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고령(65세 이상) 인구는 398천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시군은 전주시(20.94%)이며 군산시(18.25%), 익산시(15.37%), 완주군(14.54%), 남원시(9.71%)순임
- 전라북도의 고령화(65세 이상)비율은 5개년 평균 20.50%로 전국 평균인 15.60%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5년 평균 기준 전라북도 내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34.56%), 진안군(33.78%), 순창군(33.03%), 고창군(32.98%), 장수군(32.85%)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주시(14.32%), 군산시(17.93%), 익산시(18.74%), 완주군(22.2%), 정읍시(26.82%) 순임

[표 2-16] 시군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및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비중
전국		7,356,106	7,650,408	8,026,915	8,496,077	8,851,033	15.60
전북		351,282	358,410	370,676	386,203	397,619	20.50
인구감소 외 지역	전주	85,157	88,563	93,161	98,562	102,985	14.32
	군산	44,580	45,913	48,059	50,700	52,714	17.93
	익산	50,357	51,541	53,525	56,167	58,099	18.74
	완주	19,377	19,780	20,438	21,410	22,195	22.20
인구감소 지역	정읍	28,587	28,804	29,490	30,258	30,561	26.82
	남원	21,167	21,444	22,050	22,694	23,223	27.17
	김제	25,155	25,257	25,650	26,322	26,783	30.83
	진안	8,309	8,435	8,613	8,898	9,053	33.78
	무주	7,701	7,715	7,891	8,075	8,153	32.56
	장수	7,111	7,198	7,304	7,557	7,716	32.85
	임실	9,669	9,770	9,830	9,952	10,105	34.56
	순창	9,286	9,279	9,312	9,455	9,481	33.03
	고창	18,147	18,076	18,370	18,782	19,042	32.98
	부안	16,679	16,635	16,983	17,371	17,509	31.99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전북 가구구조를 살펴보면 1인, 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3인 이상 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이 2000년 대비 2020년 약 2배 정도 증가함

[표 2-17] 전북 가구원수별 규모 및 비중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북	합계	602	100.0	620	100.0	660	100.0	717	100.0	756	100.0
	1인	105	17.4	137	22.1	175	26.5	214	29.8	255	33.8
	2인	141	23.5	165	26.6	186	28.2	209	29.1	233	30.9
	3인	113	18.7	115	18.5	120	18.2	136	18.9	134	17.8
	4인	152	25.3	136	21.9	121	18.4	110	15.4	97	12.8
	5인 이상	91	15.1	68	11.0	57	8.7	49	6.8	36	4.7

주.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2020년 기준 전북의 1인 가구 비중은 33.8%, 2인 가구 30.9%, 3인 가구 17.8%, 4인 가구 12.8%, 5인 이상 가구 4.7%임
-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외 9개 시군은 2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18] 전북 시군별 가구원수별 규모 및 비중

(단위: 가구, %)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인구감소 외 지역	전주	270,768 (100.0)	89,038 (32.88)	72,892 (26.92)	52,630 (19.44)	42,417 (15.67)	13,791 (5.09)
	군산	111,817 (100.0)	37,319 (33.38)	33,761 (30.19)	20,654 (18.47)	15,217 (13.61)	4,866 (4.35)
	익산	119,474 (100.0)	41,275 (34.55)	36,014 (30.14)	21,293 (17.82)	15,440 (12.92)	5,452 (4.56)
	완주	38,551 (100.0)	13,398 (34.75)	12,108 (31.41)	6,441 (16.71)	4,512 (11.70)	2,092 (5.43)
인구감소 지역	정읍	45,970 (100.0)	15,563 (33.85)	16,346 (35.56)	7,541 (16.40)	4,523 (9.84)	1,997 (4.34)
	남원	33,974 (100.0)	11,404 (33.57)	11,932 (35.12)	5,532 (16.28)	3,497 (10.29)	1,609 (4.74)
	김제	34,697 (100.0)	11,679 (33.66)	12,810 (36.92)	5,451 (15.71)	3,278 (9.45)	1,479 (4.26)
	진안	10,674 (100.0)	3,735 (34.99)	4,099 (38.40)	1,574 (14.75)	788 (7.38)	478 (4.48)
	무주	10,469 (100.0)	3,748 (35.80)	3,886 (37.12)	1,556 (14.86)	859 (8.21)	420 (4.01)
	장수	9,383 (100.0)	3,231 (34.43)	3,536 (37.69)	1,400 (14.92)	729 (7.77)	487 (5.19)
	임실	12,288 (100.0)	4,800 (39.06)	4,338 (35.30)	1,754 (14.27)	894 (7.28)	502 (4.09)
	순창	11,647 (100.0)	3,938 (33.81)	4,394 (37.73)	1,733 (14.88)	968 (8.31)	614 (5.27)
	고창	23,512 (100.0)	8,326 (35.41)	8,905 (37.87)	3,417 (14.53)	1,888 (8.03)	976 (4.15)
	부안	22,351 (100.0)	7,815 (34.96)	8,313 (37.19)	3,438 (15.38)	1,897 (8.49)	888 (3.97)

주1.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2. 2020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다. 인구밀도현황

- 최근 5년 전북의 인구밀도 평균은 1㎢당 228명으로 전국 평균 516명의 절반수준임
 - 전북의 인구밀도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전국 평균 인구밀도와 대비됨
-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가 3,171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모든 시군의 인구밀도는 최근 5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5개년도 평균 기준으로 전주 다음으로 군산시(687명), 익산시(578명), 정읍시(162명), 김제시(156명) 순으로 높고, 진안군(33명), 무주군(39명), 장수군(43명), 임실군(49명), 순창군(59명) 순으로 낮음
 - 그 중에서도 2016년 대비 2020년에 가장 큰 인구밀도감소를 보인 지역은 고창군(-10.0%), 임실군(-9.8%), 부안군(-8.62%)순임

[표 2-19] 시군별 인구밀도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전국		515	515	516	516	516	516
전북		231	230	228	225	224	228
인구감소 외 지역	전주	3,171	3,158	3,159	3,176	3,191	3,171
	군산	701	694	688	681	674	687
	익산	593	593	581	568	557	578
	완주	116	117	115	112	112	114
인구감소 지역	정읍	166	164	162	160	157	162
	남원	112	111	110	108	107	110
	김제	161	159	156	154	151	156
	진안	33	33	33	33	32	33
	무주	39	39	39	38	38	39
	장수	44	43	44	42	41	43
	임실	51	50	50	48	46	49
	순창	60	60	59	57	56	59
	고창	100	100	94	91	90	95
	부안	116	114	110	108	106	111

주. 인구밀도 = 인구수/면적.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주간인구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타 시·도로의 통근 및 통학으로 인한 유출·유입인구보다 도내 타 시·군으로 유출·유입인구가 많음
- 전라북도의 시·군 중 주민등록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더 높은 지역은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임
 - 주민인구등록 대비 유출·유입인구 비중이 모두 높은 지역은 완주군(각 28.20%, 37.30%), 김제시(각 15.12%, 19.32%)임
 - 반면 고창군은 주민인구등록 대비 유출인구가 17.10%로 매우 높은 편이나 유입인구가 7.75%로 유출·유입인구의 차이가 큰 편이며 반대로 진안군의 유출인구 비중은 0.32%에 반해 유입인구 비중은 17.59%임

[표 2-20] 시군별 주간인구

(단위: 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유출인구		유입인구		주간인구
			통근	통학	통근	통학	
전북		1,818,917	13,167	2,454	7,724	3,127	1,814,146
인구감소 외 지역	전주	654,394	56,038	7,968	34,248	11,222	635,858
	군산	270,131	7,384	7,221	22,418	4,697	282,641
	익산	287,771	31,620	7,381	15,970	9,233	273,974
	완주	92,220	23,875	2,135	32,700	1,700	100,610
인구감소 지역	정읍	110,541	7,460	1,337	5,681	1,168	108,593
	남원	81,441	4,479	610	5,863	484	82,699
	김제	83,895	11,142	1,543	14,926	1,280	87,415
	진안	25,697	62	21	4,488	32	30,133
	무주	24,303	146	61	3,527	24	27,647
	장수	22,441	1,156	9	1,069	71	22,416
	임실	28,902	2,420	679	3,487	83	29,373
	순창	28,382	720	61	1,471	20	29,092
	고창	55,504	9,303	190	4,235	66	50,312
	부안	53,295	4,570	284	4,848	92	53,381

주1. 2019년 기준임(2020년 공표).

주2. 주간인구: 주민등록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라. 인구이동현황

- 전라북도의 5개년 평균 청년순이동률은 -3.08%로 타 시·도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모든 14개 시·군의 5개년 평균 청년(19~34세) 순 이동률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전주시와 군산시만 인구유출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13개 시·군은 인구유출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 고창군은 2018년, 임실군은 2020년 청년 인구유출(각 -17.40%, -17.72%)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표 2-21] 시군별 청년(19~34세) 순 이동자 수 및 이동률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이동률
전북		-8,341	-11,694	-11,531	-10,286	-8,219	-3.08
인구감 소 외 지역	전주	-2,726	-1,362	-942	-458	-133	-0.82
	군산	-1,659	-1,508	-1,370	-1,264	-1,239	-2.98
	익산	-162	-3,329	-3,226	-3,089	-2,068	-4.33
	완주	-281	-655	-843	-395	-310	-3.39
인구감 소 지역	정읍	-854	-960	-1,018	-1,011	-891	-5.75
	남원	-543	-592	-785	-603	-691	-5.49
	김제	-505	-625	-664	-676	-491	-5.16
	진안	-93	-180	-104	-232	-238	-5.66
	무주	-118	-129	-145	-203	-167	-5.24
	장수	-298	41	-337	-225	-239	-7.66
	임실	-173	-34	-439	-622	-275	-8.48
	순창	-182	-242	-317	-295	-341	-8.01
	고창	-299	-1,408	-770	-632	-571	-10.02
	부안	-448	-711	-571	-581	-565	-8.18

주. 순이동 = 전입 - 전출. 순이동률(%) = [연간 순 이동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2021년 기준 전북 총 전입은 22.3만 명, 총 전출은 22.9만 명으로 순이동 -5,801명 수준이며, 순이동률은 -0.32%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29세 (-3.49%)로 20대의 전출이 가장 높고,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69세(0.42%)로 60대의 전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시도간 전입·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10~39세는 전출이 더 높아 타 시도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0~9세, 40~79세는 전입이 더 높아 타 시도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 특히 20대의 경우 시도 간 순이동을 봤을 때 -7,266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타 시도로의 인구 유출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22] 전북 연령별 이동자 수 및 이동률

(단위: 명, %)

구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순이동률	시도내 이동- 시군구간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계	223,710	229,511	-5,801	-0.32	114,540	61,478	67,279
0~9세	17,204	17,125	79	0.06	10,565	3,476	3,397
10~19세	18,292	18,972	-680	-0.39	10,280	4,253	4,933
20~29세	49,963	57,229	-7,266	-3.49	21,404	17,182	24,448
30~39세	38,245	38,898	-653	-0.35	19,691	10,445	11,098
40~49세	32,571	32,204	367	0.14	17,522	8,290	7,923
50~59세	30,597	29,484	1,113	0.37	16,169	7,849	6,736
60~69세	21,957	20,862	1,095	0.42	11,004	5,997	4,902
70~79세	8,917	8,554	363	0.21	4,844	2,376	2,013
80세 이상	5,964	6,183	-219	-0.08	3,061	1,610	1,829

주. 2021년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 추이를 살펴보면 전북의 순이동은 2017년 -7,206명에서 2018년 -13,773명으로 약 2배정도 유출이 심화되었다가, 2021년 -5,801명으로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5년간 순 이동을 살펴보면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장수군을 제외하고 10개 시·군에서 인구유출이 심화되었음
- 특히 익산시에서 인구유출이 제일 심하게 나타남

[표 2-23] 전북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증감률	
전북	전입	232,047	243,324	228,775	249,083	223,710	-3.59	
	전출	239,253	257,097	241,523	257,577	229,511	-4.07	
	순이동	-7,206	-13,773	-12,748	-8,494	-5,801	19.50	
인구 감소 외 지역	전주	전입	84,966	102,608	99,640	107,423	93,521	10.07
		전출	88,848	101,110	96,550	104,277	92,637	4.26
		순이동	-3,882	1,498	3,090	3,146	884	122.77
	군산	전입	33,640	38,888	33,808	40,013	35,364	5.12
		전출	36,171	40,958	35,805	41,781	36,211	0.11
		순이동	-2,531	-2,070	-1,997	-1,768	-847	66.53
	익산	전입	40,104	34,325	33,063	34,814	35,018	-12.68
		전출	40,178	40,044	38,614	39,411	37,660	-6.27
		순이동	-74	-5,719	-5,551	-4,597	-2,642	-3470.27
	완주	전입	11,441	11,001	9,861	11,482	10,699	-6.49
		전출	10,880	12,328	11,773	11,729	10,490	-3.58
		순이동	561	-1,327	-1,912	-247	209	-62.75
	정읍	전입	14,599	12,017	11,938	13,017	10,662	-26.97
		전출	15,262	12,906	12,916	14,149	11,317	-25.85
		순이동	-663	-889	-978	-1,132	-655	1.21
	남원	전입	8,761	9,177	8,960	10,765	8,239	-5.96
		전출	9,222	9,467	9,667	10,952	8,779	-4.80
		순이동	-461	-290	-707	-187	-540	-17.14
김제	전입	9,815	9,276	8,562	9,078	9,426	-3.96	
	전출	10,028	10,210	9,313	9,722	9,738	-2.89	
	순이동	-213	-934	-751	-644	-312	-46.48	
진안	전입	2,832	2,580	2,436	2,565	2,304	-18.64	
	전출	2,418	2,746	2,511	2,698	2,378	-1.65	
	순이동	414	-166	-75	-133	-74	-117.87	
무주	전입	2,082	2,160	2,018	2,142	2,065	-0.82	
	전출	2,027	2,122	2,050	2,134	2,059	1.58	
	순이동	55	38	-32	8	6	-89.09	
장수	전입	1,851	2,660	2,012	1,914	1,738	-6.10	
	전출	2,308	2,260	2,593	2,096	1,879	-18.59	
	순이동	-457	400	-581	-182	-141	69.15	
임실	전입	4,291	4,471	3,800	2,789	2,661	-37.99	
	전출	4,088	4,341	4,695	4,133	2,911	-28.79	
	순이동	203	130	-895	-1,344	-250	-223.15	
순창	전입	3,425	3,328	2,736	2,913	2,469	-27.91	
	전출	3,519	3,626	3,323	3,265	3,010	-14.46	
	순이동	-94	-298	-587	-352	-541	-475.53	
고창	전입	8,296	5,528	4,953	5,005	4,920	-40.69	
	전출	7,874	8,494	6,031	5,451	5,300	-32.69	
	순이동	422	-2,966	-1,078	-446	-380	-190.05	
부안	전입	5,944	5,305	4,988	5,163	4,624	-22.21	
	전출	6,430	6,485	5,682	5,779	5,142	-20.03	
	순이동	-486	-1,180	-694	-616	-518	-6.58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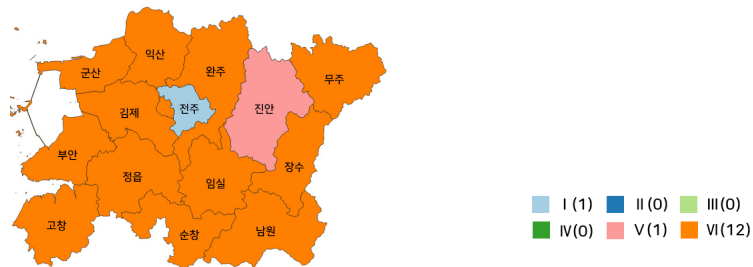
3. 인구증감분석

- 전총인구증감, 자연증감, 사회증감 세 요소를 고려하여 인구증감유형을 총 6가지로 구분하여 나눔
 - 총인구증감: 2020년 주민등록인구에서 2016년 주민등록인구를 제한 최근 5년 총인구증감
 - 자연증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누적 자연증가건수(출생자수-사망자수)
 - 사회증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누적 순이동수(전입-전출)
- 전라북도는 유형 I, V, VI에만 해당함
 - 유형 I 은 자연증감과 사회증감 모두 증가하여 총인구도 증가하는 지역으로 전북 유일하게 전주만 해당함
 - 유형 V, VI은 총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으로 유형 V의 경우 사회증감은 증가하지만 자연증감이 감소하여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진안이 해당하며 유형 VI의 경우 자연증감, 사회증감 모두 감소하여 총인구도 감소하는 가장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전주와 진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이에 해당함

[표 2-24] 인구증감 요인과 유형

구분	인구 증감 유형	증감요인		행정체제별		인구규모별				
		자 연 증 감	사 회 증 감	시	군	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30만 미만	30만 이상
인구증감 지역	I	+	+	1개						1개
	II	+	-							
	III	-	+							
인구감소 지역	IV	+	-							
	V	-	+		1개	1개				
	VI	-	-	5개	7개	4개		5개	3개	

주. 2016~2020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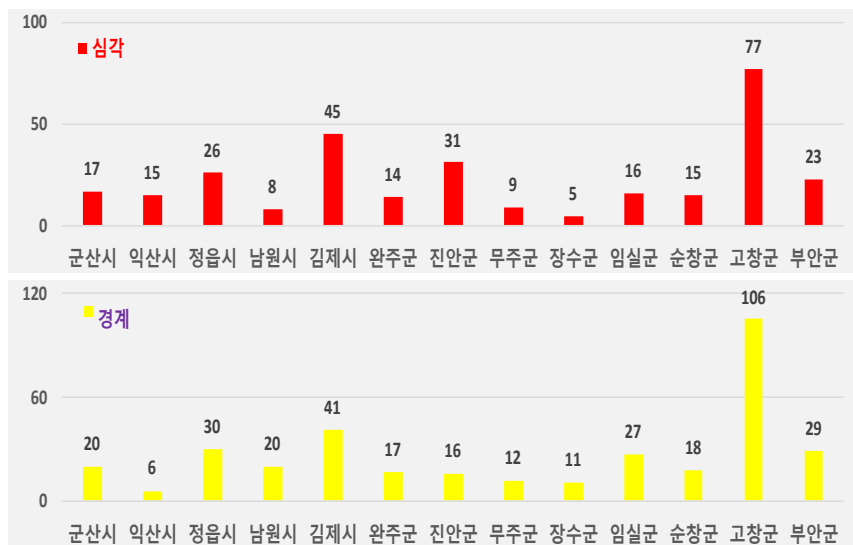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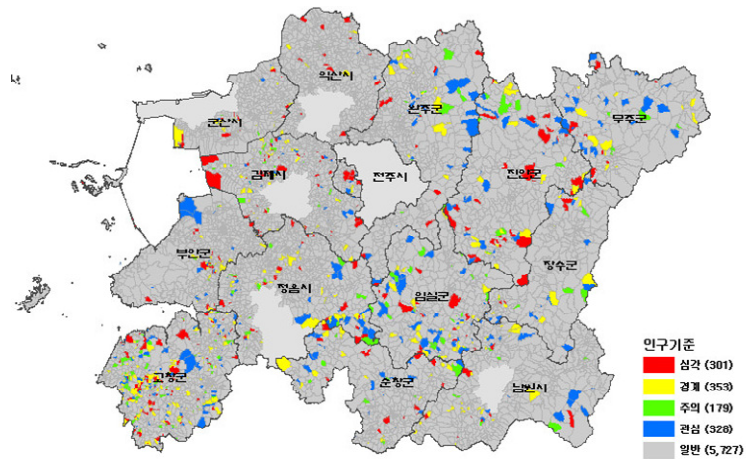
[그림 2-7] 시군별 인구증감 유형

4. 지수분석 및 시사점

가. 과소화마을 분석²⁾

- 전라북도 마을의 과소화 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음
 - 1단계: 인구기준(20인 미만)에 따라 과소와 준과소마을 추출
 - 2단계: 과소마을 중 인구변화율이 과소화 기준에 부합하는 마을을 추출하여 4개 등급으로 분류
 - ※ -50%이상: 심각, -25%이상: 경계, 0%미만: 주의, 0%이상: 관심
 - 3단계: 과소화 등급이 '심각'과 '경계'에 해당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고령인구비율이 50%이상인 마을은 '한계 마을'로 20%이상인 마을은 '준한계마을'로 분류
- 2016년 기준 과소화마을(인구) 심각 301개(전북 마을 전체의 4.3%), 경계 353개(전북 마을 전체의 5.1%)임
 - 심각등급은 고창군, 김제시, 진안군, 정읍시 순으로 높으며 경계등급은 고창군, 김제시, 진안군, 부안군 순으로 높음

2) 전라북도(2019). 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제작 연구용역.



자료 : 전라북도(2019).

[그림 2-8] 2016년 과소화마을(인구기준)

나. 지방소멸지수 분석³⁾

-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주의단계(0.5이상~1.0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0.2이상~0.4미만), 소멸고위험단계(0.2미만)로 나뉨
- 지방소멸지수 0.2미만에 해당하는 소멸고위험지역은 2000년 0개, 2005년 1개, 2010년 30개(18.9%), 2015년 92개(57.9%), 2019년 121개(76.1%)로 증가함
 - 읍과 일부 면을 제외한 121개의 지역에서 지방소멸 지수가 0.2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정읍시, 고창군 등 7개 시군에서 지방소멸 지수가 0.1이하인 지역이 12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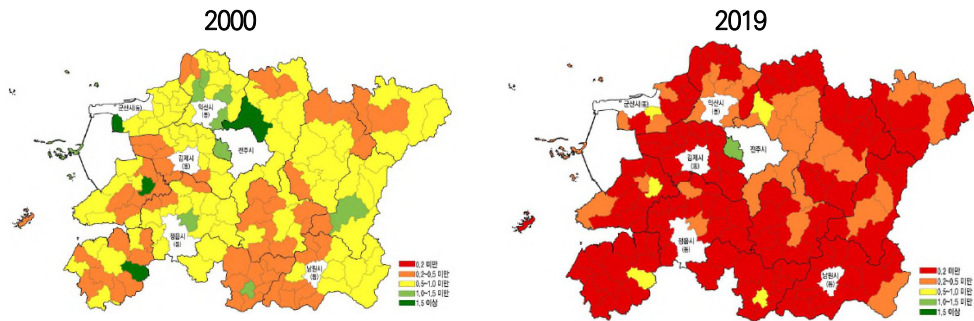
[표 2-25] 시군별 지방소멸 지수별 읍면 수

(단위: 개)

구분		0.2미만	0.2~0.5미만	0.5~1.0미만	1.0~1.5미만	1.5이상
소계		121	31	5	1	0
인구감소 외 지역	군산	6	4	1	-	-
	익산	8	7	-	-	-
	완주	4	7	1	1	-
인구감소 지역	정읍	13	2	-	-	-
	남원	15	1	-	-	-
	김제	15	-	-	-	-
	진안	9	2	-	-	-
	무주	4	2	-	-	-
	장수	5	2	-	-	-
	임실	10	2	-	-	-
	순창	10	-	1	-	-
	고창	13	-	1	-	-
	부안	10	2	1	-	-

자료 : 이성재 & 한국환(2020),

3) 이성재 & 한국환(2020),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유형별 발전전략 연구. 전북연구원.



자료 : 이성재 & 한국환(2020),

[그림 2-9] 읍면별 지방소멸 지수

다. 인구감소지수 분석

- 연평균인구증감률(20년, 5년),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지표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라북도 종합인구감소지수를 도출
- 8개 지표의 각 측정단위와 분포가 상이하여 통합적으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개별지표들을 0~1의 범위에 위치하도록 표준화함
- ※ 각지표의 최솟값 및 최댓값을 이용하여 표준화함에 따라 각 지표의 최솟값을 가진 지역은 0이 되고 최댓값을 가진 지역은 1이 됨

· 정(+)의 지수 표준화 값 (고령화비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	$= 1 - \frac{x_{ij} - \min(x_j)}{\max(x_j) - \min(x_j)}$
· 부(-)의 지수 표준화 값 (고령화비율)	$= \frac{x_{ij} - \min(x_j)}{\max(x_j) - \min(x_j)}$
· j = 개별지표	· x_{ij} = j 지표의 i 지역 값
· i = 지역	· $\min(x_j)$ = j 지표의 최솟값
	· $\max(x_j)$ = j 지표의 최댓값

- 지수 해석 용이성을 위해 8개 지표 중 유일하게 부(-)의 지수를 나타내는 고령화비율을 제외한 모든 지수를 역의 값으로 치환한 후 백분화함

[표 2-26] 지수 표준화 방안

정(+)의 지수	부(-)의 지수
· 연평균인구증감률(20년, 5년) · 인구밀도 · 청년순이동률 · 주간인구 · 유소년비율 · 조출생률 · 재정자립도	· 고령화비율

- 표준화한 각 지수 값에 가중치를 곱한 값들을 합산하여 종합인구감소지수를 도출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객관적 통계기법(Data-Driven Method)을 활용하여 선정한 가중치를 이용

[표 2-27] 각 지수별 가중치

지수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순 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 출생률	재정 자립도
	20년	5년							
가중치	0.124	0.110	0.110	0.108	0.105	0.114	0.113	0.102	0.114

주. 종합 연평균인구증감률 가중치는 0.234로, 20년 및 5년 비중은 연구자 임의로 선정.

- 인구감소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인구감소 심각성이 큰 것으로 해석 가능
- 전라북도의 인구감소지수는 8개 지수 모두 타 시도 대비 전체적으로 높아 지방소멸 위험성이 큰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전북의 종합인구감소지수는 93.96점으로 전남(96.28점) 다음으로 제일 높아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전라북도의 8개 지수 점수는 17개 시·도 평균과 중위 값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지난 20년·5년 동안 나타난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가 지방소멸위험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
 - 전국 평균적으로는 5년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점수가 제일 높은 반면, 전라북도는 20년연평균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 5년연평균인구증감률 점수가 제일 높음
- 전라북도와 16개 시·도와 비교해보면 타 시도 대비 지난 20년간 인구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고, 재정자립도는 더 낮은 편임

- 17개 시·도 평균 및 중위 값과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지수는 20년 연평균 증감률, 고령화 비율, 재정 자립도 지수임

- 5년 인구감소 지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표 2-28] 시도별 종합인구감소지수 및 순위

구 분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순 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 출생률	재정 자립도	종합 지수	순 위
	20년	5년									
서울	10.98	10.85	0.00	8.15	1.71	4.49	11.30	9.25	0.00	56.73	15
부산	11.98	10.94	8.00	9.66	7.86	6.98	11.16	9.99	5.53	82.10	5
대구	10.61	10.85	9.16	9.81	8.81	4.76	9.64	9.61	6.21	79.46	7
인천	6.13	10.26	9.17	8.80	8.40	2.54	8.85	8.42	4.23	66.80	14
광주	8.48	10.55	9.07	9.66	9.58	3.01	7.45	8.95	7.10	73.86	11
대전	8.59	11.00	9.18	9.41	9.52	2.89	8.31	8.78	6.62	74.29	10
울산	7.81	10.95	10.32	10.34	9.78	1.12	7.54	7.47	4.54	69.87	13
세종		0.00	10.61	0.00	10.50	0.00	0.00	0.00	3.72	24.84	17
경기	0.00	9.03	10.19	7.70	0.00	2.14	7.51	8.07	3.55	48.18	16
강원	9.76	10.38	11.00	10.14	9.46	8.44	10.54	10.08	10.72	90.51	4
충북	7.96	10.13	10.92	9.32	9.39	6.27	9.05	8.57	9.70	81.31	6
충남	7.11	10.01	10.89	9.04	8.90	7.41	8.26	8.18	8.82	78.62	8
전북	11.99	10.98	10.91	10.80	9.22	9.21	9.56	10.20	11.09	93.96	2
전남	12.40	10.87	10.96	10.80	9.12	11.40	10.08	9.25	11.40	96.28	1
경북	10.84	10.76	10.97	10.57	8.36	9.36	10.29	9.31	10.40	90.86	3
경남	7.83	10.48	10.84	10.12	7.90	5.53	8.34	8.90	8.46	78.40	9
제주	4.09	9.12	10.82	8.27	10.21	4.59	6.81	7.59	8.89	70.40	12

주. 세종의 경우 20년 인구증감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년 인구증감률 지수에 전체연평균증감률 가중치를 곱함.

-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감소지수를 살펴보면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순으로 지수가 높게 나타나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종합인구감소지수가 가장 높은 5개 군 간에도 지수별 점수 차이가 존재함
 - 고창군 지수별 점수를 살펴보면 5년인구증감률, 유소년비율, 20년인구증감률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편차 없이 지수가 매우 높음

- 부안군(20년인구증감률, 유소년비율, 인구밀도 및 재정자립도), 임실군(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20년인구증감률), 장수군(재정자립도, 20년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무주군(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주간인구) 간에도 지수별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지방소멸위험에 크게 요인을 미치는 특성들을 시군별로 파악하여 정책 발굴에 반영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표 2-29] 시군별 종합인구감소지수 및 순위

구분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종합지수	순위
	20년	5년									
전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5	0.00	3.25	14
군산	2.97	4.41	8.71	2.47	6.07	1.94	0.92	3.57	4.05	35.11	13
익산	7.15	7.00	9.09	4.33	6.17	2.38	3.58	5.13	5.94	50.77	11
완주	0.00	4.98	10.71	3.02	9.17	4.40	1.40	2.57	4.36	40.62	12
정읍	11.46	6.73	10.55	6.08	9.01	7.13	6.94	8.01	9.73	75.65	9
남원	9.42	5.11	10.73	5.88	9.46	7.29	6.14	5.38	10.07	69.49	10
김제	11.44	7.02	10.57	5.90	9.39	9.39	9.55	8.89	9.26	81.40	6
진안	9.34	3.50	11.00	5.09	10.37	11.08	10.95	3.25	11.40	75.98	7
무주	8.86	4.58	10.98	6.05	10.41	10.47	9.72	10.20	10.60	81.87	5
장수	11.11	7.48	10.96	6.34	10.50	10.42	9.10	8.45	11.27	85.62	4
임실	10.97	10.53	10.94	8.70	10.38	11.40	11.19	4.88	10.90	89.88	3
순창	7.91	8.10	10.91	8.66	10.39	10.69	8.45	0.00	10.77	75.89	8
고창	10.82	11.00	10.78	10.80	9.95	10.48	10.89	9.51	10.58	94.81	1
부안	12.40	9.51	10.73	8.24	9.97	9.98	11.30	8.89	10.73	91.73	2

[표 2-30] 전북 시·군별 지수 점수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인구감소 외 지역	전주	조출생률	-	-
	군산	인구밀도	주간인구	5년인구증감률
	익산	인구밀도	20년인구증감률	5년인구증감률
	완주	인구밀도	주간인구	5년인구증감률
인구감소 지역	정읍	20년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남원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주간인구
	김제	20년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유소년비율
	진안	재정자립도	고령화비율	인구밀도
	무주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고령화비율
	장수	재정자립도	20년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임실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20년인구증감률
	순창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고령화비율
	고창	5년인구증감률	유소년비율	20년인구증감률
	부안	20년인구증감률	유소년비율	인구밀도·재정자립도

1) 14개 시군별 특성

-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지수점수별로 평균(μ)과 표준편차(σ)를 이용하여 4개의 구간으로 나눔
 - 인구밀도지수는 전주시와 다른 13개 시·군간 격차가 커 전주시를 제외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범주변수 구간을 설정함
-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구간을 상대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당 시군의 타 시군대비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됨
 - ※ 범주변수가 낮을수록 지수 점수가 낮아 해당 시군이 전북의 타 시군대비 해당 지수의 심각성 정도가 낮음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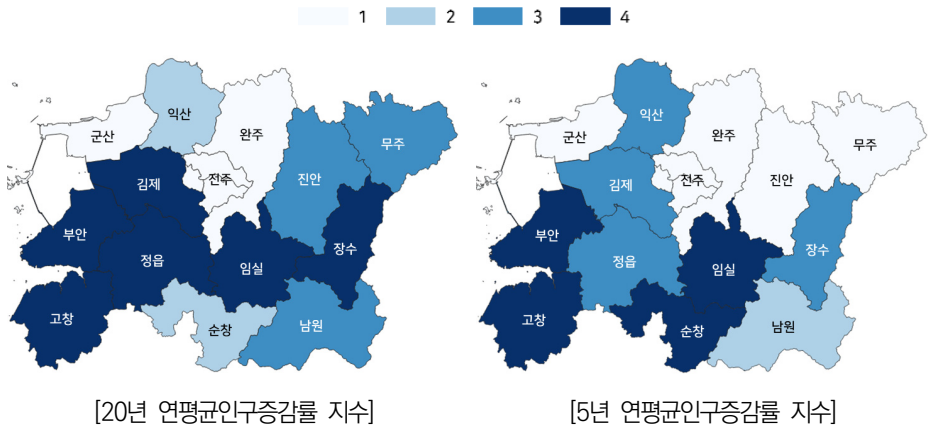
[표 2-31] 범주변수 구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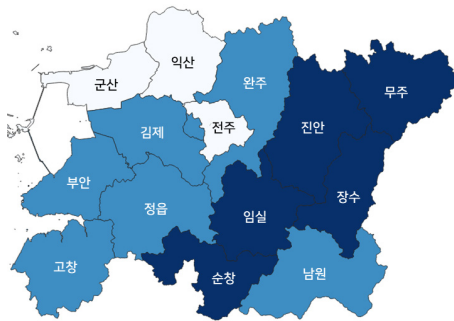
범주변수	구간기준
1	$\mu - 0.5\sigma$ 미만
2	$\mu - 0.5\sigma$ 이상 μ 미만
3	μ 이상 $\mu + 0.5\sigma$ 미만
4	$\mu + 0.5\sigma$ 이상

[표 2-32] 지수별 범주변수 구간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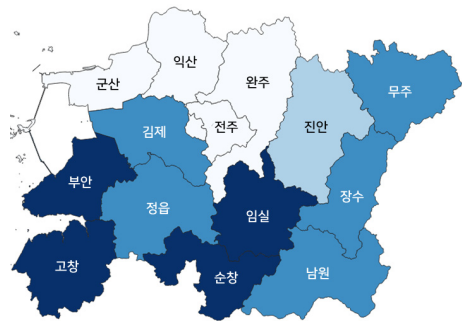
범주 변수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순 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 출생률	재정 자립도
	20년	5년							
1	< 6.11	< 5.98	< 10.16	< 4.47	< 7.27	< 5.77	< 5.19	< 4.35	< 6.85
2	6.11 ≤ x < 8.13	5.98 ≤ x < 7.77	10.16 ≤ x < 10.51	4.47 ≤ x < 5.83	7.27 ≤ x < 8.66	5.77 ≤ x < 7.65	5.19 ≤ x < 7.15	4.35 ≤ x < 5.86	6.85 ≤ x < 8.55
3	8.13 ≤ x < 10.15	7.77 ≤ x < 9.56	10.51 ≤ x < 10.87	5.83 ≤ x < 7.18	8.66 ≤ x < 10.05	7.65 ≤ x < 9.52	7.15 ≤ x < 9.12	5.86 ≤ x < 7.36	8.55 ≤ x < 10.24
4	10.15 <	9.56 <	10.87 <	7.18 <	10.05 <	9.52 <	9.12 <	7.36 <	10.24 <

○ 지수별로 설정한 구간에 따라 나눈 범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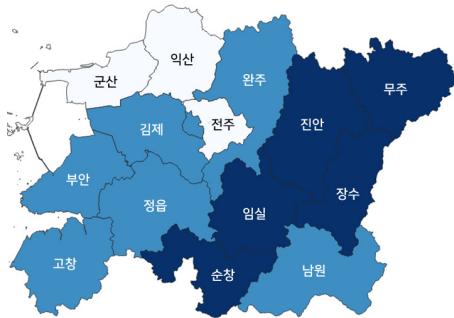




[인구밀도 지수]



[청년순이동률 지수]



[주간인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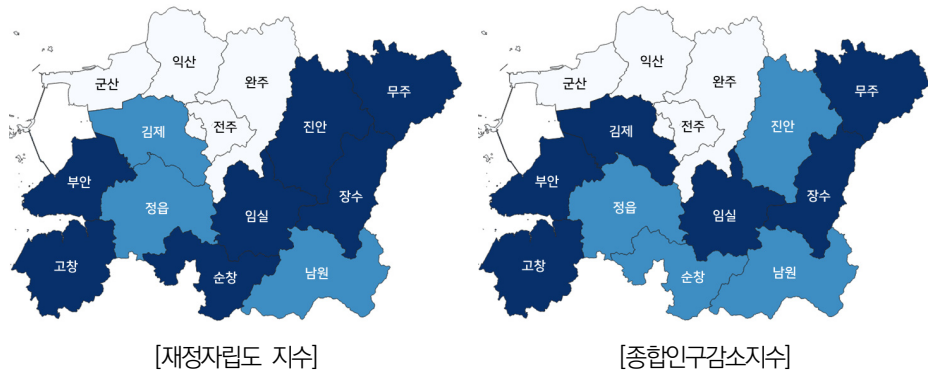
[고령화비율 지수]



[유소년비율 지수]



[조출생률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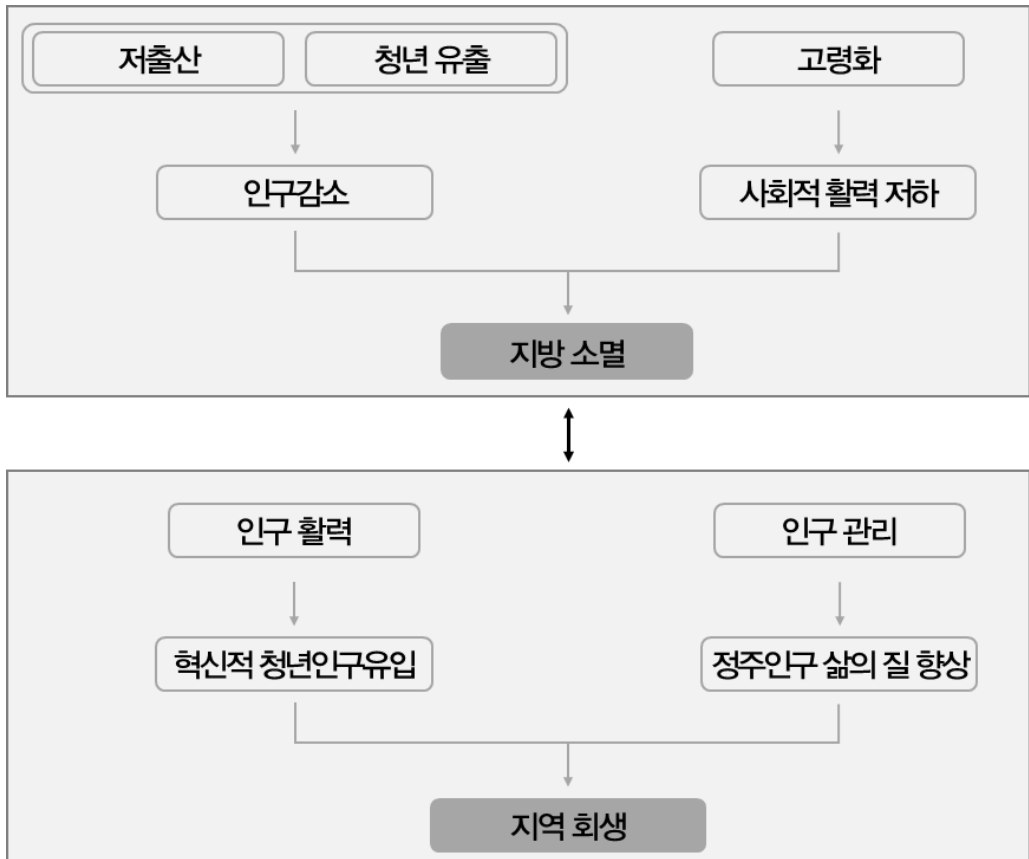
[그림 2-10] 지수별 시군별 범주변수

[표 2-33] 시군별 지수별 범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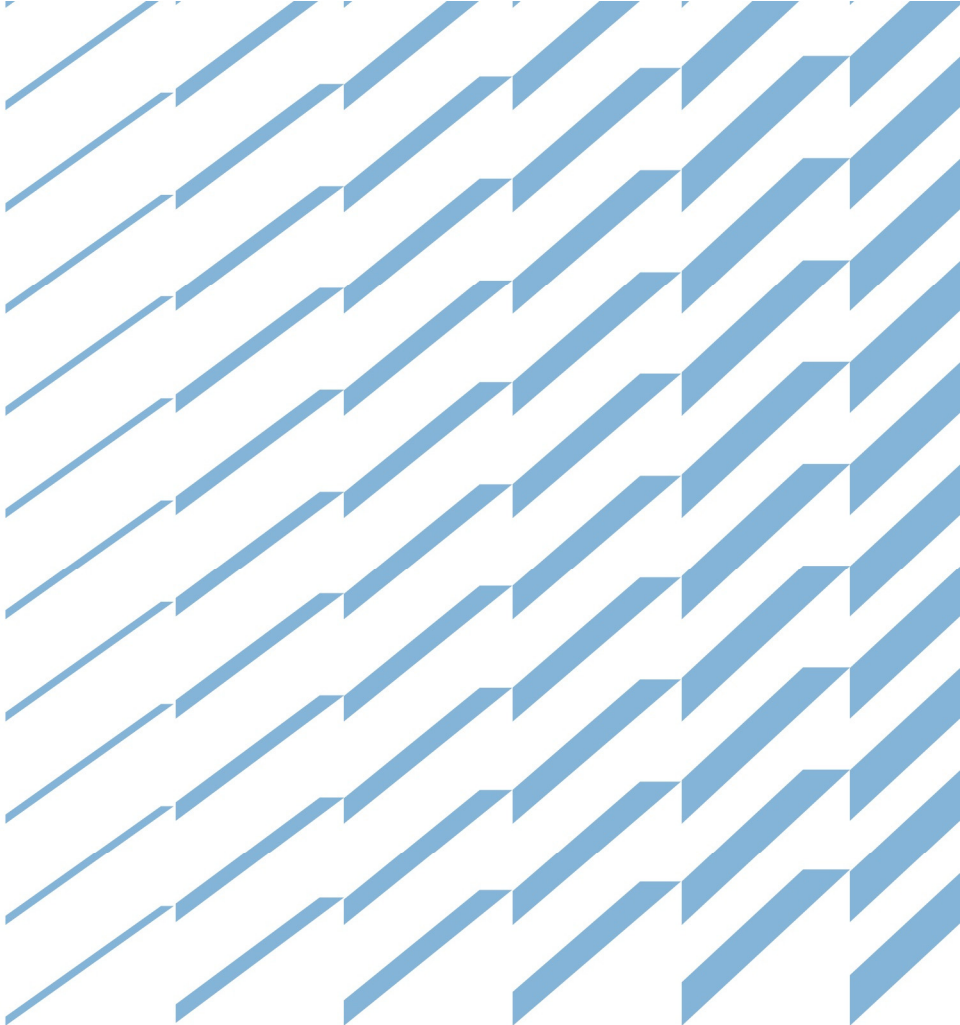
	20년 연평균	5년 연평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 률	재정 자립도	종합 지수
전주	1	1	1	1	1	1	1	1	1	1
군산	1	1	1	1	1	1	1	1	1	1
익산	2	3	1	1	1	1	1	2	1	1
정읍	4	3	3	3	3	2	2	4	3	3
남원	3	2	3	3	3	2	2	2	3	3
김제	4	3	3	3	3	3	4	4	3	4
완주	1	1	3	1	3	1	1	1	1	1
진안	3	1	4	2	4	4	4	1	4	3
무주	3	1	4	3	4	4	4	4	4	4
장수	4	3	4	3	4	4	3	4	4	4
임실	4	4	4	4	4	4	4	2	4	4
순창	2	4	4	4	4	4	3	1	4	3
고창	4	4	3	4	3	4	4	4	4	4
부안	4	4	3	4	3	4	4	4	4	4

라. 시사점

- 전라북도 인구감소는 저출산과 청년유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통한 지방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모든 14개 시·군의 5개년 평균 청년(19~34세) 순 이동률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전주시와 군산시만 인구유출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13개 시·군은 인구유출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라북도는 새로운 혁신을 통한 사회적 활력의 동력이 약화돼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고령(65세 이상) 인구는 398천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시군은 전주시(20.94%)이며 군산시(18.25%), 익산시(15.37%), 완주군(14.54%), 남원시(9.71%)순 임
- 위와 같은 저출산·청년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사회적 활력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활력과 인구관리정책의 투트랙 인구정책이 필요
- 인구활력은 구조적인 저출산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분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
- 청년인구의 유출문제는 주민등록 상의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유입과 더불어 청년들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 수립
- 혁신적인 청년의 체류인구 확대는 특히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장기 체류인구를 집중적으로 추진 필요
- 인구관리정책은 정주인구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유희공간관리, 행정서비스관리, 문화여가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추진



[그림 2-11] 전라북도 인구현황을 통한 인구정책 시사점



제3장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례

1. 인구관련 정책
2. 사례



제3장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례

1. 인구관련 정책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 행안부는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8년부터 전남 목포시 ‘괭챙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매년 1개씩 총 3곳에서 시범 조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12개소로 확대됨



자료 : 2021 청년마을 홈페이지(<https://localcity.modoo.at/>).

[그림 3-1] 2021 청년마을

- 지원 금액은 1년 6억 원에서 2022년부터 3년간(2022~2024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 지원으로 변경되었음
-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의 사업추진 자율권 및 주도권을 보장하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협력·지원을 유도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⁴⁾

- 행정안전부의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지방소멸, 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임
-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구만 신청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형식임
-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전(테마형 특화단지 Re-New 과학마을), 경남 김해(고고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 경기 부천(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3곳이 선정됨
 -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존도시에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 및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원하는 사업
-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으로 개편하여 경남 통영(지역상권과 함께하는 스마트 시티 통영), 부산 수영(Suyeong Smart ECT), 서울 성동구(교통중심 왕십리 스마트 트랜시티), 충남 공주·부여(스마트 세계문화유산도시) 4곳이 선정됨
 - ‘타운챌린지’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리빙랩 등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도시 내 일정구역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
 - 첫 해 3억 원을 지원하고, 후속평가를 거쳐 1년간 20~40억원(국비 10~20억원) 지원
- 2021년에는 강원 원주(대학-지역사회를 잇는 교통·안전 서비스), 충남 서산(산업단지 안전·교통·환경 서비스), 전남 광양(순환형 에코포인트 플랫폼) 3곳이 선정됨

4)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홈페이지(www.smartcity.go.kr)를 참고하여 작성

스마트타운 챌린지

● 사업개요

중소도시 특화형 솔루션 신규 발굴·실증 중점으로
특정분야(교통·환경·방범) 지정하여 공모

신청주체 지자체 단독 신청

사업대상 인구 50만 이하 시·군·구

● 지원규모

사업기간 1년

선정규모 7곳

사업규모 30억 (국비 50%)

“중소규모 지자체 특화 서비스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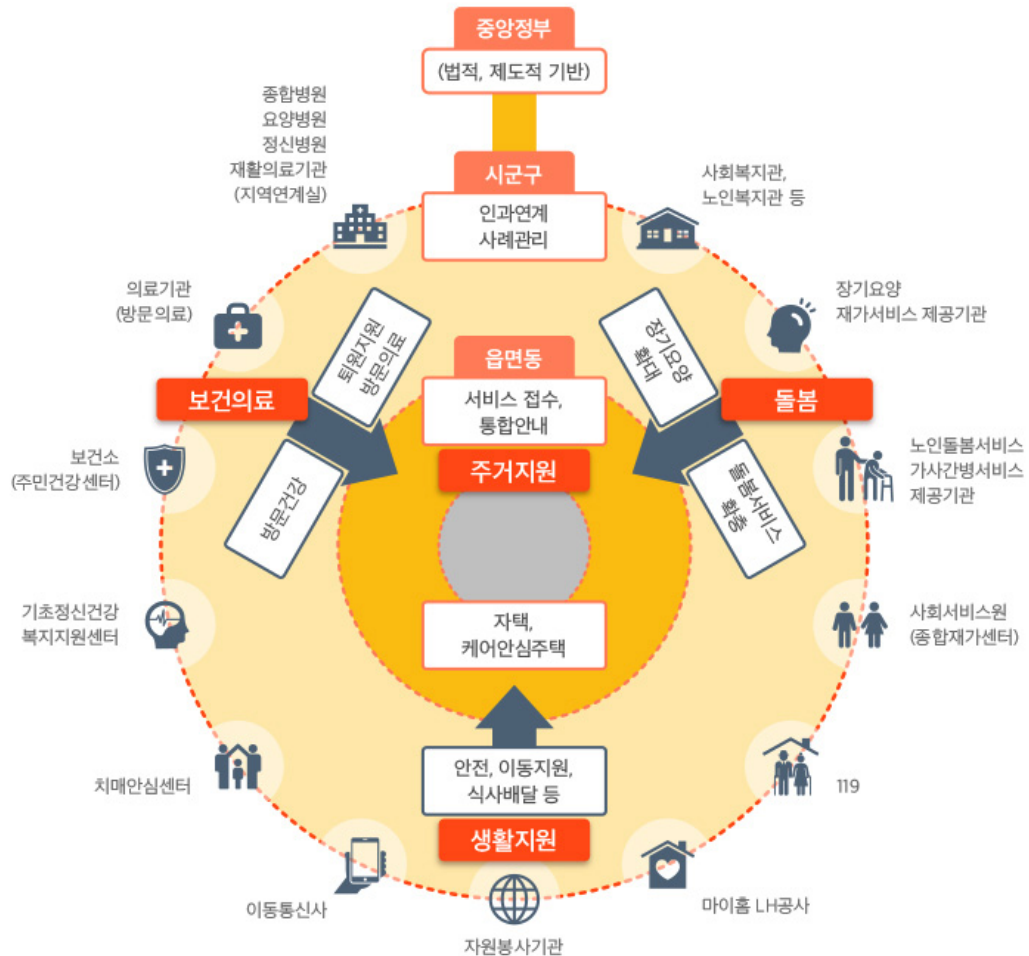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홈페이지(www.smartcity.go.kr/).

[그림 3-2] 2021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⁵⁾

-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현상에 맞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독립생활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임
- 4대 핵심요소: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를 참고하여 작성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

[그림 3-3] 지역사회 통합 돌봄

○ 2021년 기준으로 총 16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부산 부산진,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부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청양,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

2. 사례

가. 홍성 젊은협업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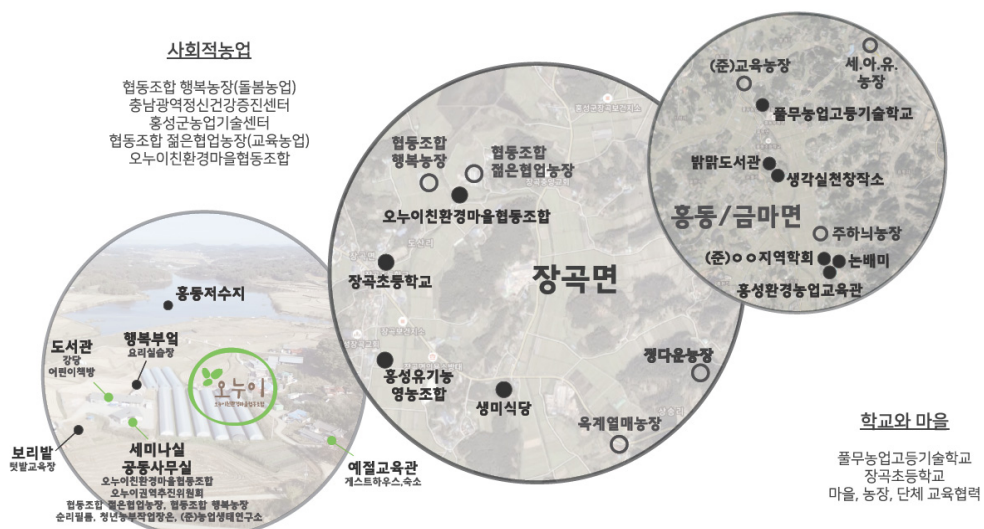
- 홍성 젊은협업농장은 토지 및 자본이 없는 귀농귀촌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마을 이장, 농민, 활동가, 오피니언 리더 등이 출자금을 마련하여 2011년에 설립하였음
 - 조합원 43명이 모여, 약 4,500만 원의 조합비 출자
 - ※ 풀무학교 이사장, 지역 영농조합 대표, 마을 이장 등이 이사로 참여
 - ※ 토지와 시설 일부는 임차하여 이용하며, 임대인도 조합원으로 참여
 - ※ 농장시설(하우스)을 조합비로 신축하여 조합농장으로 구축(시설하우스 8동 1,500평, 저온창고 5평, 소농기구 등)
 - 귀농귀촌인구의 지역소속감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함
 - 2011년 11월 준비 → 2012년 3월 채담이농장 시설하우스 1동 실험재배(사랑한 세남자란 이름으로 시작) → 2012년 9월 도산2구로 이전하여 하우스 4개로 확장 → 2013년 5월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으로 법인화 → 2013년 8월 하우스 4개 신축 → 2014년 4월 논농사시작
 - 생산물 70%이상 지역영농조합을 통해 학교급식, 생협 등으로 납품
- 1차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는 농장형 협동조합이며, 고용이 아닌 조합원으로써 생산에 참여
 -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없으며 생산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1/n으로 배당
 - 시설 및 장비 부담이 적고 노동집약적인 샐러드 채소 위주로 재배
 - ※ 365일 생산이 가능하며 1년 여러 작기 경험 가능함
 - 매일 7~8명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약 연 20톤이고, 연매출은 약 1억 2천만 원임



[그림 3-4] 홍성 젊은협업농장

- 농장 스태프(1년 이상) 및 교육생(1년 이하)으로 구분하여 농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없고 상황에 따라 맞춤교육으로 진행됨
 - 매년 농촌에 유입되는 청년들의 연령, 귀농귀촌 목적, 농장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과 기간에 맞춰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스태프 및 교육생들은 몇 년 후 독립하거나, 농업 관련 단체에 종사하기도 함
 - 단기·중기 도시청(소)년 대상 캠프 등 농업·농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단체 및 농장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학습체계를 구축함
 -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할 젊은 농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 농업일과가 끝난 이후에는 다양한 지역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일과 학습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농장의 분화와 연대를 통하여 소규모 유기농업을 실현하고 있음
 - 젊은협업농장에서 분화·독립한 행복농장(2014), 열매농장(2015) 등이 있으며 협업적 방식을 활용하는 농장이 지역에 확대됨

-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풀무학교와 학교 졸업생이 연대하여 창업(2011)
- ※ 행복농장: 충남광역정신건강진흥센터와 젊은협업농장이 연대하여 설립(2014)
- ※ 옥계열매농장(2015), 공재배팀(2015), 논농사팀(2017) 등: 젊은협업농장의 생산 조합원이 젊은협업농장 외 인력과 결합하여 창업
- ※ 금마유평피아농장: 협업농장의 사례를 보고 기존 농가와 신규 귀농자가 결합(2015)
- 새로 만들어지는 농장이 협동조합 등의 법인일 경우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 새로 만들어지는 농장에 대하여 초기 사업비 지원
-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연계를 위하여 지역 내 여러 조합이 모여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젊은협업농장이 위치한 곳에도 여러 조합이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음



자료 : 젊은협업농장 내부자료.

[그림 3-5] 마을관계망 구축

나. 서천 삶기술학교

- 천안에서 문화기획사로 출발하여 한산모시축제사업단으로 발판을 삼아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외부청년들이 서천 한산면에 삶기술학교를 설립하였음
 - 소곡주, 모시짜기, 공작부채, 음식 등 마을기술을 보존하고 청년기술을 배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시골마을에서 대안적 삶을 추구하며 나만의 삶기술로 함께 더불어사는 자립공동체이며, 도시의 삶기술과 마을의 삶기술을 교환하며 '삶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실현을 돕는 대한민국 청년 성장 지원 코칭 시스템
 - 청년, 마을주민, 전문가,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이 협력하여 지역 혁신형 인재 발굴 및 육성하여 지방소멸을 동시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 한달살기와 3개월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음
- 참가자들은 숙소, 공유공간 이용 등 월 55만원의 개인부담금이 있음
 - 프로젝트,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 외에는 삶기술학교에서 직접적인 식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 참가자들을 위한 숙소는 삶기술학교에서 운영하는 호텔, 숙박시설 임대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거처를 제공하고 삶기술학교에서 리모델링하여 거주한 이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기도 함



[그림 3-6] 삶기술학교에서 운영하는 호텔

- 2019년부터 시작하여 약 200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한 프로그램 당 약 30명 정도를 선발하여 진행함
 - 프로그램 참가자 중 매회 10~15명 정도가 정착의지를 보임
 - 현재까지 약 10개 팀이 창업
 - ※ 모시짜투리로 옷 만들기, 모시가방 만들기, 소곡주 리브랜딩(일오백한산), 소곡주돈까스, 관광지요가, 문화컨텐츠, 마케팅 등
- (공동체교육) 마을주민, 장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기술을 배우며 한산면의 자원을 발견하고 공동체와 지역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팀프로젝트를 진행
 - 요가, 여행, 등산 등 지친 도시를 떠나 자신의 삶을 회복
 - 소곡주, 모시, 공작부채, 함석, 대장간 등 장인으로부터 한산의 전통기술을 배움
 - 지역 주민들의 손기술을 이어на가고 가치계승 할 수 있는 활동 진행
 - 비즈니스 코칭,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성장하는 프로그램 진행
- (삶기술프로젝트) 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자신만의 삶기술프로젝트를 만들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숍
 -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실제로 사업화해보거나, 자신의 기술을 실현하는 삶기술프로젝트
 - ※ 빈집 고쳐서 카페 만들기, 초등학교에서 미술 클래스 열기 등
- 도시 직장인들이 한산면에서 ‘워케이션(workation: work + vacation)’이 가능하도록 마을형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인 디지털 노마드 센터 조성
 - 입주형 공유 오피스, 교육장, 공유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최신 IT기기 임대 및 활용 가능
 - 삶기술학교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호텔, 펍, 카페, 사진관 등과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여가활동 가능
- 디지털노마드의 경우 행안부 스마트타운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워케이션밸리 형태로 기업대기업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예정임

- 디지털노마드 운영을 위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8명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 건물은 군의 소유로 임대하여 사용함에 따라, 보조금으로 공간 및 인프라를 조성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충분한 소득을 창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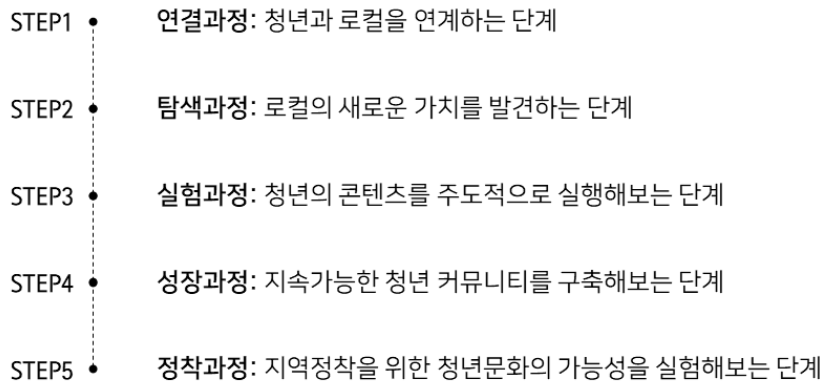


[그림 3-7] 한산 디지털 노마드 센터

다. 문경 달빛탐사대

- 타지에서 돌아온 4명의 지역청년인 사업체 대표들이 뜻을 모아 지역청년협의체 ‘가치살자’로 시작하였으며 2020년 행안부 용역사업에 발탁되어 1년 동안 지원금(6억)을 받고 청년마을을 조성함
 - 행안부 이후에는, 경북 문경시 지자체로부터 2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 받고 있음(2021~2022)
 - 기존 협의체에서 2022년 3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였음
 - 가치살자 조합원 및 직원 모두 요식업, 디자인업 등 생계를 위한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며, 참가비 및 청년마을을 통한 수익창출은 없음
- 달빛탐사대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시험하는 프로젝트이며, 도시 청년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창업 공간을 열어주고, 소멸 위기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참여자가 창업, 배움 등을 위해 큰 틀을 기획하고 달빛탐사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연결, 교육, 자본마련 등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20개 프로젝트 운영, 팀당 최대 5인 이하 구성
- ※ 프로젝트별 최대 1000만 원 예산 지원, 숙소, 공간, 일자리 지원연계 등
- ※ 버스킹, 팝업스토어 운영, 특산물 리브랜딩, 공간 기획 등이 있음



[그림 3-8] 달빛탐사대 프로그램 과정

- 2020년에는 총 85명의 청년이 참여를 했으며, 40%는 지역청년이고, 60%는 외부청년으로 구성되었음
 - 지역청년과, 외부청년 간 참여비율을 나눈 이유는, 지역청년과 외부청년 간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 및 화합이 필요하기 때문임
 - 지역청년들은 외부청년들을 경쟁자가 아닌 “welcome”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외부청년들은 지역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다른 편으로는, 지역청년들은 외부청년들에게 지역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청년들은 지역청년들에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도 함
- 지역주민들과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함
 - 예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하여 숙박업소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숙박 시장에 진입하여 지역주민들과 경쟁하지 않고 다른 기회들을 찾아 시작하고 있음
 - 문경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조금만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둘러보면 로컬에서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

- 버스킹 프로젝트, 책방 프로젝트, 팝업스토어 프로젝트, 공간예술플랫폼 프로젝트, 원데이클래스 프로젝트, 자유프로젝트 등을 시행
 - 버스킹 프로젝트: 버스킹, 오미자축제 등 다양한 축제 공연
 - 책방 프로젝트: 반달책방, 로나의거실, 책방해봄, 책방맞음 등 책방으로 창업
 - 팝업스토어 프로젝트: 로컬푸드 디지털가게인 베이크샵연분 운영
 - 자유프로젝트: 달빛어부 체험 낚시, 단편영화 촬영, 복합문화공연 개최, 에세이 작성, 농촌체험, 라디오 방송 진행 등
-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공간, 업무공간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 주거공간인 쉼어하우스, 청년들의 활동 거점이자 지역주민의 교류장인 커뮤니티공간(달맞이 스페이스, 보름달오피스), 청년들의 창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창업공간(책방 등), 컨테이너타운이 있음
 - 달맞이스페이스: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던 공간을 청년과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참가자들의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2층은 참가자들의 프로젝트 공간(서점운영, 원데이클래스, 1인 미디어방송 부스)으로 활용
 - 보름달오피스: 청년과 협력기관의 사무공간인 공유오피스로 근대문화재 지정예정인 근대가옥을 참가자들이 직접 수리해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위성사무실 및 가치살자 운영사무실로 활용 중
 - 컨테이너타운: 문경도자기박물관 바로 옆에 방송 세트로 활용되었던 12개의 컨테이너를 쌓아올려 아케이드로 만든 공간으로 음악 및 공연 연습실, 체험 프로젝트 실험공간, 경북청년협동조합협의회 위성사무실 등으로 활용 중
 - 교통이 불편하여 참여자들을 위하여 공용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에 머물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청년도 있음
- 현재는 지원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클럽하우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프로그램 유료화를 통하여 수익창출을 이어갈 예정임



[그림 3-9] 달빛탐사대 클럽하우스

라. 거제 아웃도어 아일랜드

- 공유를위한창조는 2015년 이바구캠핑에서 도시재생 운영팀에 참여하며 시작되었으며, 2019년 장승포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거제의 아웃도어 문화를 담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에 발탁되었음
- 거제에서 아웃도어 문화를 즐기기 위한 자본 및 수요층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었음
 - ※ 거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핑, 캠핑, 트레킹, 낚시 등 일상적인 아웃도어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지역임
 - ※ 또한 조선업 종사자가 대다수라 4인 이상 가족의 고소득층이 많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제시의 아웃도어 문화를 알리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기 위하여 거제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아웃도어 아일랜드의 아이덴티티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음
- 공유를위한창조는 ‘커뮤니티 공유공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청년기업으로, 지역의 관점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솔루션을 찾아 마을의 공간과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음
- 프로그램은 70일 지역살이, 2박3일 단기살이, 정착 및 창업,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되

어 있음

- 2021년에는 10주 지역살이 1기 진행 후, 2주 뒤에, 2기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는 각 20명이었음
- 여가생활(캠핑, 서핑, 트레킹), 로컬비즈니스, 커뮤니티미팅, 글쓰기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시행하였음
- ※ 캠핑, 서핑, 트레킹 등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 거제도, 장승포의 아웃도어 문화를 경험해보고, 동아리를 기획하여 운영
- ※ 지역 리서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
- ※ 탐색과정에서 얻은 영감과 지역자원을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 ※ 아웃도어 비즈니스, 로컬 비즈니스·컨텐츠·브랜딩 등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하여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 창출
- 2박3일 단기살이 프로그램은 '워크-트립'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며 영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착·창업·창직 프로그램은 실제 장승포에 이주 및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웃도어 아일랜드는 지역주민들과 외부청년들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마을 사업 전후로 지역주민들의 외부청년들에 대한 태도 및 문화가 많이 변화하였음
- 프로그램 이후, 취업 7명, 창업 및 창직 6명, 탐색 및 단기 체류 3명, 관계인구 84명의 성과를 냄
- 아웃도어 아일랜드는 마을상점들과 협약을 맺어 '함께 살아가는 장승포'를 목표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쿠폰'을 기획
- 마을 상점은 주로 장승포 지역 일대 식당, 소규모 마트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6개 가맹점으로 시작했으나, 지역살이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는 30개로 확대됨
- 종료 이후 로컬 쿠폰에 참여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들과의 유대관계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쿠폰 혜택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음

[표 3-1] 로컬 쿠폰 가맹점(2021년)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가입	6	15	6	4	4	-	-
탈퇴	-	-	-	-	1	-	-
누적	-	15	21	25	30	30	30

자료 : 아웃도어 아일랜드 보고서, p58.

○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공간, 업무공간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 바다, 강, 산을 비롯한 아웃도어를 의미하는 '밖'은 아웃도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커뮤니티 라운지임
- '여가'는 코워킹 스페이스, 전시장, 서재공간으로 글쓰기 커뮤니티 회의 등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거가'는 함께 만들고, 먹는 공유주방 및 다이닝룸으로 함께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논의하고 제안하고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임



자료 : 아웃도어 아일랜드 홈페이지(<https://outdoorvillage.kr/>).

[그림 3-10] 거제 아웃도어 아일랜드 '밖'

○ 해수부 용역 등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특화형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함

- 위케이션, 지역살이하이퍼로컬(직원들 및 마을주민들이 외부청년 1명을 전담하여 마을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제조(조선소 근로자들의 버려진 유니폼을 리폼, 아웃도어용품 협업, 캠핑용품 키트 등)

마. 안산 마을주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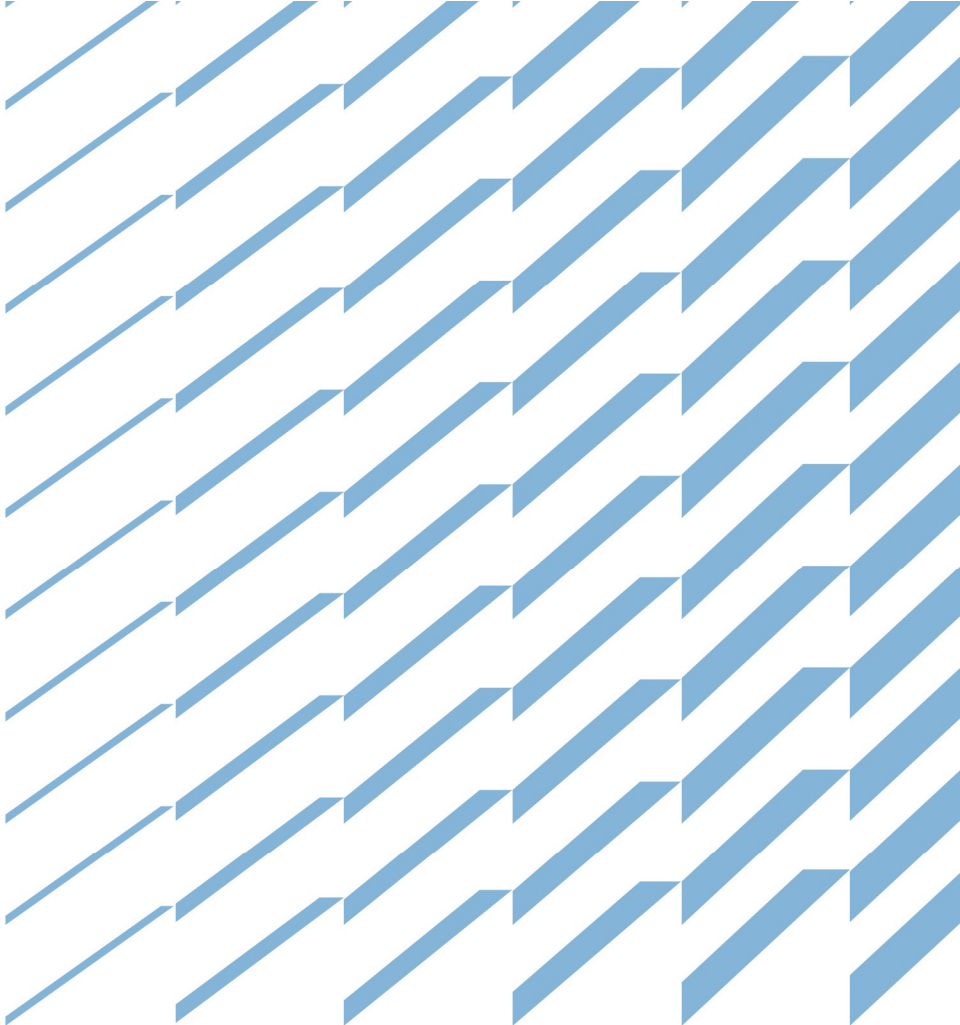
- 안산시는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의료사협 새 안산의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안산형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
 - ‘안산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방문형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의료 사각지대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추진
 - 방문진료팀은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었으며, 기초혈액검사, 방문간호, 작업치료, 필요한 돌봄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거동이 어려운 관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음
- 안산의료사협은 ‘건강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전문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수행
 - 안산형 주치의 시범사업(새안산의원)뿐만 아니라 안산형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새안산한의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별건강관리지원사업, 장기입원 퇴원환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가정간호사업소(가정간호, 방문간호) 등도 진행하고 있음

바. 태안 마을연금⁶⁾

- 태안군 만수동은 80살 이상의 고령 노인, 장기 입원자 및 장애 판정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마을연금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마을공동 자산인 마을양식장에서 젊은 회원과 고령 회원 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전체 바지락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상품성과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촌계장이 ‘바지락 마을연금’을 착안해 내었음
 - ※ 고령 회원은 힘에 부쳐 작은 바지락도 채취했고, 이에 젊은 회원들과 갈등이 빚어짐
 - 마을연금으로 고령 회원들과 수익을 나누면서 은퇴 유도

6) 한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마을이다 <4> 태안 만수동마을 어촌계. (2020.12.30.).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868>를 참고하여 작성.

-
- 은퇴한 고령 회원뿐만 아니라, 지병 또는 사고로 활동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수혜 대상
 - 마을양식장에서 공동으로 캔 바지락 판매액에서 어촌계 운영비를 제외한 당일 수익의 70%를 회원들이 균등하게 나누며, 나머지 30%를 마을연금에 적립
 - 대부분의 바지락은 무역업체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며 바지락 작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당일 출하대금을 공정하게 지급
 - 마을연금 금액은 바지락 생산량에 따라 변동되며 1명당 연간 300~380만 원 정도임
 - 한 달에 2번 정산하여 수협을 통해 개인 계좌로 지급됨
 - 마을연금 운영 이후, 전체 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상품성이 좋은 바지락 출하로 판매 단가를 높여 소득 증가함
 - 또한, 작은 바지락을 캐지 않아 양식장 관리 및 양식장 환경이 개선됨
 - 2016년 6월 연금 운영 이후 2020년 12월 기준으로 귀어인 12가구가 마을에 정착함
 - 귀어인 모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인당 가입비는 1만원임
 - 기존 마을주민에게 귀어인들의 기술을 재능기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함
 - 하지만 거주 공간이 부족하여 만수동에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 정착하기는 어려움



제4장

인구감소대응 정책방향

1.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인구문제의 3가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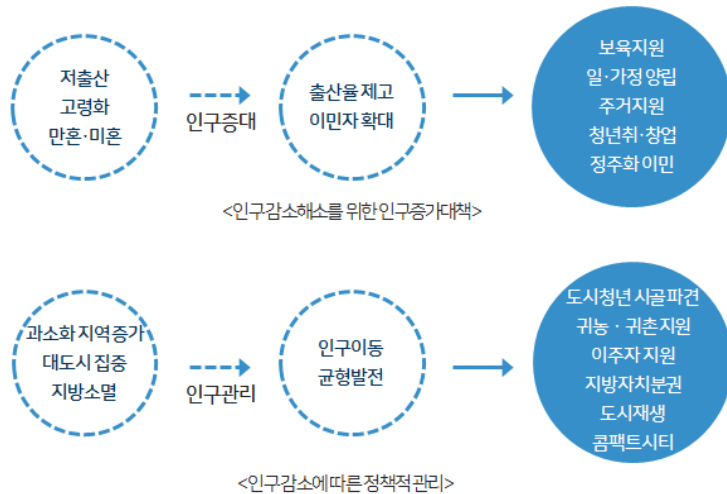


제 4 장 인구감소대응 정책방향

1.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가. 인구증대정책에서 인구관리정책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인구감소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보조금 및 유입인구 지원금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을 통한 지자체의 인구유입정책은 초기에 일정한 성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지자체간의 보조금 지급 무한경쟁체제 돌입으로 정책효과성이 떨어짐
- 지금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위적인 인구증대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상황에서의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하고 있는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구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그림 4-1] 인구정책 방향

나. 주민등록인구중심 정책에서 체류인구관계인구 정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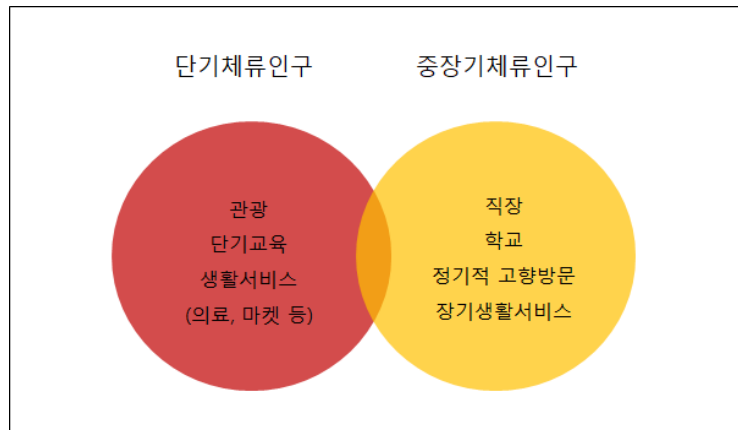
- 절대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감소로 이어지지만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우선시되면서 지방의 발전전략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 지속됨
- 대부분의 인프라와 개발예산이 현재의 정주인구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기에 주민등록 인구를 대체할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체류인구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표 4-1] 체류인구 관련 개념정의

구분	정의	비고
유동인구	특정지점, 일정시간 기준의 유입, 유출, 이동 인구수	통계청
생활인구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	서울시
계획인구	상주인구+1일 체류인구(관광객수×계획일집중률×동시 체재율)	제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체재·교류인구	관광객을 정주인구1인당 소비액으로 환산한 후 정주인구와 합	일본 관광청
관광체류인구	거주인구+연간관광객수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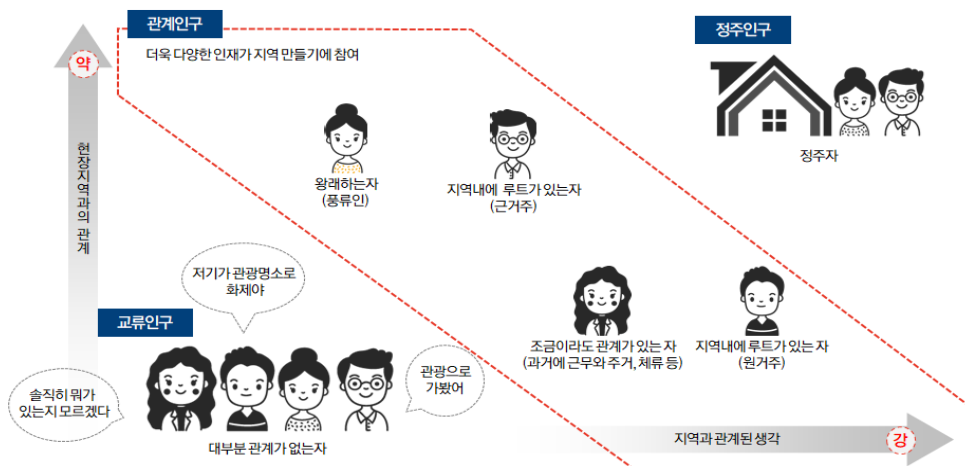
자료 : 김동영 & 김형오. (2018).

-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민등록인구는 수도권과 부울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 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체류인구는 강원도와 전라도 등 관광매력요소를 가진 지역이 더욱 우위에 있음
- 체류인구의 개념은 1개월 이내의 관광이나 생활서비스를 위해 방문하는 단기체류인구와 1개월 이상 직장이나 업무,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정주하는 중장기체류인구로 구분 가능
- 단기체류인구가 지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고 약한 연대를 추구하는 반면, 중장기체류인구는 머물면서 지역과 강한 연계를 맺으면서 지역활동이 활발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김동영, 2020, 전북체류인구 활성화 방안)



[그림 4-2] 체류인구의 개념

- 인구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최근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김동영, 2020)
-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고향 납세자, 전직 근무자, 지역 팬, 연구자 등을 ‘유바리 라이커즈(likers)’로 등록하여 주민과 더불어 지역활력 도모



자료 :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포털사이트(<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

[그림 4-3] 관계인구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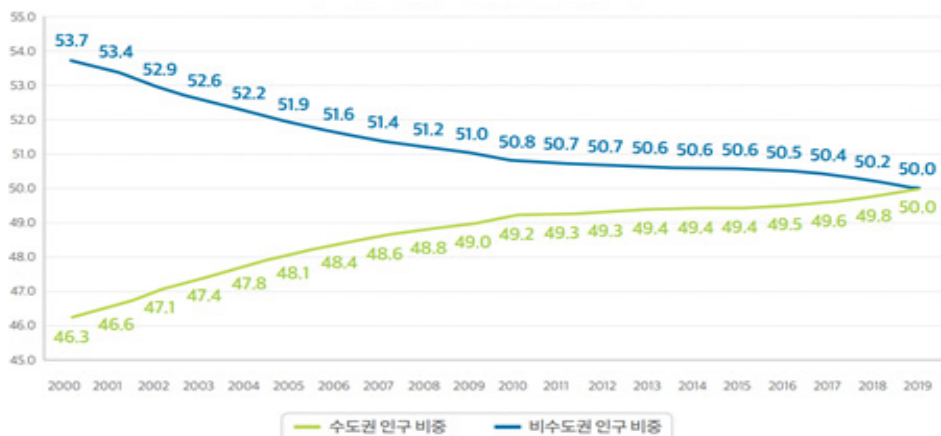
2. 인구정책의 3가지 쟁점

가. 인구규모

- 인구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인구규모가 감소하는 문제임. 인구위기론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면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국가나 지방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임
- LG경제연구원은 10년 이내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대안으로 청년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의 고급인력 유입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함
- 반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인구감소에 의한 소비위축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 등은 국가 간 자본유입에 따른 개방경제모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함
- 심지어 일본의 구조주의 생물학 권위자인 이케다 기요히코는 지금의 인구규모를 ‘비정상적 과포화 상태’라고 진단하고, 저상장과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함
- 두 견해는 상반되어 보이나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적절한 인구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

나. 인구밀도

- 인구문제의 두 번째 문제는 특정지역으로의 인구밀도 심화현상의 인구집적문제임
- 인구집적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인구가 동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많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다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나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어섰음
-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25,925,799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924,062명 보다 1,737명을 초과하였음(김태환 외, 2020)



자료 : 김태환 외(2020).

[그림 4-4]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비중 추이

- 국토연구원은 국토미래연구에서 지금까지처럼 경쟁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면 미래에는 수도권이 강원권과 충청권까지 확대된 큰 원과 부산, 울산, 경북이 작은 원을 그리는 불균형적 아령형으로 국토가 발전될 것이라고 예측함
- 정부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둔감한데 그 이유는 국가 안에서 인구가 이동해도 총인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임
- 그렇지만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심화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를 지방인구문제와 접목해 보면 마을, 리, 면, 읍 단위에서 구, 시 단위의 도시로 인구가 이동이 일어나는 문제와 과소화 및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인구관리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됨



자료 : 이용우 외(2014).

[그림 4-5] 아령형 국토발전

다.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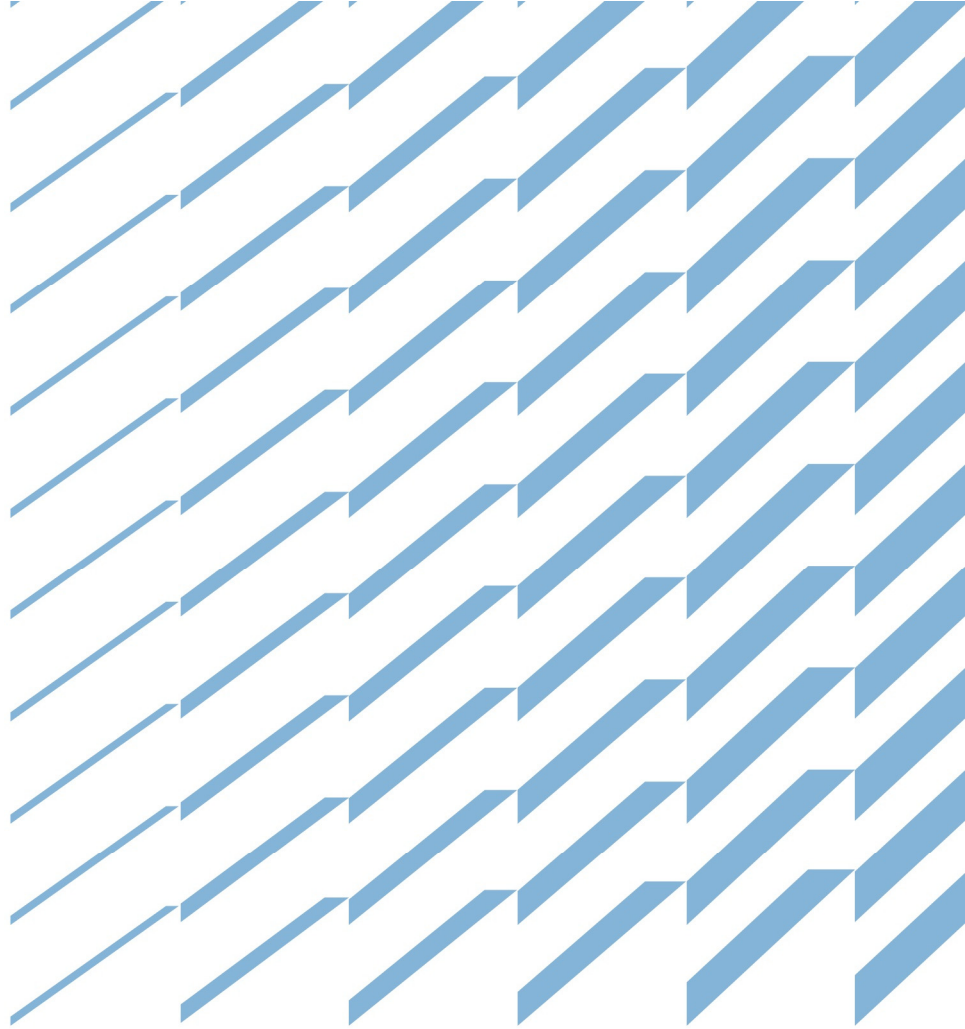
- 인구문제의 마지막은 인구구조에서 인구연령의 분포정도에 대한 문제임
- 인구연령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습득과 창의적 일을 만들어내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임
 - 미국 경제학자 벤자민 존스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 300개를 분석한 결과 30세~49세 발명가가 위대한 발명 중 72%를 차지
 - 미국의 세계 첨단기업 10개 중에 9개가 40세 이전의 젊은 기업가에 의해 탄생



자료 : 머니투데이

[그림 4-6] 성공한 100대창업가 창업나이

- 20대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대도시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나 문제는 30-40대에 20대에 배운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함
-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 계층(30~40대)이 지역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적절한 인구규모와 가장 창의적 연령대가 일정한 인구밀집을 이룰 때 가장 많은 혁신이 일어난다고 할 때 혁신의 거점형성이 중요함
- 청년문제와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건강, 복지 등 인구구조의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맞춤형 정책전환 필요함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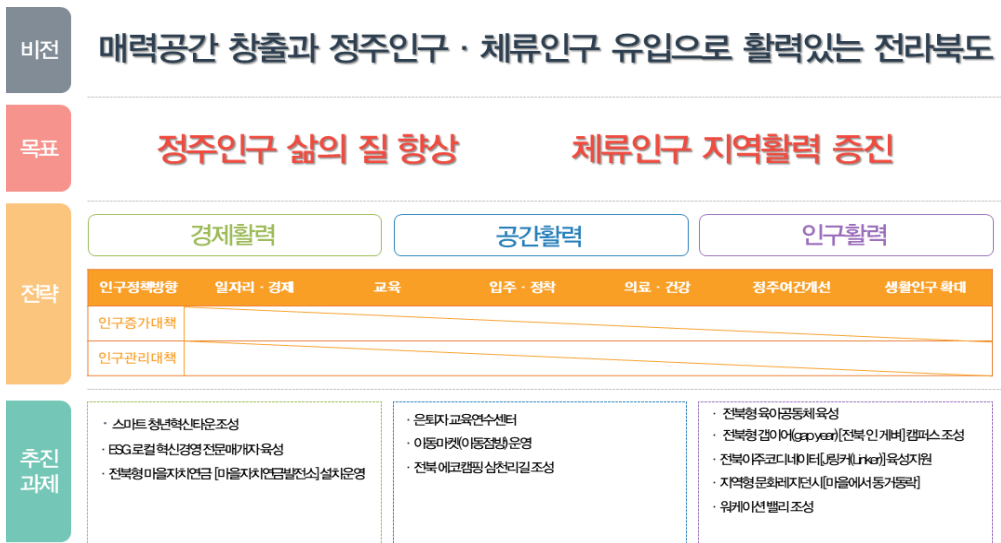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3. 추진과제



제 5 장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1. 비전 및 목표



[그림 5-1] 비전 및 목표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은 기존의 기업유치나 대규모 사업발굴 등을 통한 외생적 발전전략보다는 전북의 자체적인 자원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구의 자연스런 유입을 목표로 설정
- 또한 정주인구와 더불어 체류인구 특히 혁신적 인재의 중장기 체류를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의 비전은 “매력공간 창출과 정주인구·체류인구 유입으로 활력있는 전라북도”로 설정
- 정책적 목표는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과 “체류인구 지역활력 증진”으로 설정하여 살기 좋은 전라북도와 활력있는 전라북도 달성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설정

2.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 단순 인구의 증대가 아닌 혁신적 인재의 유입이 중요

- 지역의 사회적 활력, 경제적 활력, 공간적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첨단기술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구의 양적 확대전략이 아닌 혁신인력의 유입 즉 인구의 질적 유입이 더욱 중요
- 혁신인력의 끊임없는 창조성과 연결된 창조인력의 네트워크가 삶의 양식과 결합되면서 혁신적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혁신적 인재의 완전한 이주가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창조적 인재들의 노마드적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하여 혁신적 인재의 전라북도 내 중장기 체류를 통해 지역활력의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 지역문제를 로컬의 자원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해결

- 대기업 취업이나 도시에서의 삶의 낙오자들의 회피의 대상으로 지방이나 농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는 청년세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첨단농업으로의 전환, 농업과 ICT기술의 융합, 시장실패에 의한 생활서비스 부재 등의 종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혁신청년인재의 육성이 중요함
- 지역에 필요한 혁신적인 청년세대는 첨단기술 기반의 인력,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재, 고유성과 트렌드를 결합할 수 있는 사람 등 종합적 인재이자 이들의 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임
- 그 중에서도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인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다양한 부처 융합적 대응

- 인구문제는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부처의 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함
- 인구정책은 특정 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부처 사업으로 모든 부서가 인구소멸을 막는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구증가와 인구관리로 인구정책 방향설정

- 인구정책을 ‘인구감소해소를 위한 인구증가대책’과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관리대책’으로 나누어 방향을 설정함
-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과 양육 등 삶의 질 증진을 통한 인구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전략이 필요하며, 인구관리대책으로는 인구의 균형적 분포와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 및 행정서비스 전략 등의 정책이 필요
- 인구증가와 인구유입정책을 다시 세대별로 분리한 후 인구정책 분야와 교차하여 세대별 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 유형별 정책 발굴이 필요
- 인구증가, 인구관리라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일자리·경제, 교육, 입주·정착, 의료·건강, 정주여건, 생활인구 등의 인구정책 분야와 교차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시 생애주기별 세대별 수요로 구분하여 정책을 발굴

[표 4-2] 세대별 사업 유형별 정책(예시)

인구 정책 방향	세대	사업별 정책					
		일자리·경제	교육	입주·정착	의료·건강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인구 증가 대책	유아	보육알자리창출	국공립유치원	공동육아	출산지원	인프라개선 빈집재생	태교숲조성
	청소년	멘토-멘티 결연	농촌유학 특성화학교	학령기 가족 입주지원	무상의료		도시학교-시골 농장 자매결연
	청년	지역알자리 창출 기업유치	지역대학 혁신거점	인구매개 인력육성 청년마을 쉐어하우스	산부인과 진료지원		리모트워크 한달살기
	중장 년	경단녀지원 외국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재취업	타시도전입 지원 귀농귀촌프로그램 이주민정착지원			세컨드하우스 관광체류인구
	노인	노인일자리		은퇴자마을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담)		정착유도 고향사랑도민증
인구 관리 대책	유아				공공산후조리원	콤팩트시티 교통개선 스마트시티	
	청소년		작은학교살리기 방과후교육 인재육성		문화시설		
	청년	지역창업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스마트파머	역량강화				이중주소제
	중장 년	베이비 부머	평생교육				스마트워크농촌
	노인	고령 일자리 창출		1인주거시설확충 마을자치연금	마을주치의 의료지원 공공요양병원		생생마을조성

3. 추진과제

가. 경제활력

1) 스마트 청년혁신타운 조성

■ 배경 및 목적

- (양질의 일자리) 기존 지역 일자리사업은 양적 접근(일자리 수)이 이루어져 왔으나,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지역주도형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면서 유망한 분야의 기술 결합이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설계 필요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디지털·스마트화 분야의 인력양성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운 상황
 - 디지털 전환 관련 일자리는 대도시 위주로 형성되며, 스마트 기술 활용을 필요로 하는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운영 인력과 기업 부족
 - 지역 교육기관 및 기업이 연계하여 청년이 성장·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양성이 중요
- ※ 특히 디지털 전환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① 대도시로 디지털 관련 일자리가 집중되는 현상과 ②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리적 제약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거점의 기회요인으로 활용 고려
- (지역거점의 혁신공간화·스마트화 필요) 지역 거점에 청년의 가치관을 반영한 ‘일-삶-교육-여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 공간 조성 필요
 - 인구감소지역은 디지털 등 신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인력유출이 심하여 지역 중심지로서의 거점기능과 서비스 유지가 어려움
 - 지역 동·읍·면 지역은 지역 청년에게 스마트 타운 조성과의 연계한 양질의 교육 기회와 생활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최전방 공간
- ※ 지방 중소도시의 거점은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복합화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밀집된 지역,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스마트타운 챌린지 등 다양한 사업이 집중되어 타 사업들과 종합적인 연계에 유리
- ※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가임여성인구는 지역의 읍 지역에 밀집되며 그 이하 규모의 지역은 기피하는 양상을 보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개년)
- (사업비) 17,000백만 원(기금 10,000, 도비 3,500 시군비 3,500)
- (사업위치) 인구감소 시·군의 동 지역 또는 읍·면 소재지 2곳
 - (위치선정 이유) 고등학교·대학, 일자리, 주거 등의 인프라를 타운 내(인접 거리)에 형성한 거점지역인 김제시 또는 정읍시 대상
 - ※ 김제시(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정읍시(전북과학대학) 내에 스마트·IoT 관련학과 교육 연계 가능
- (주요사업) 스마트 지원센터(디지털 공동 교육장, 지역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스마트 솔루션 개발·활용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지역기업 연계 스마트 프로젝트 지원사업, 디지털 혁신청년(가칭) 보금자리사업, 스마트 청년몰 등
 - ※ 주요 사업들이 지역소재지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배치 필요

-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타운의 구성을 위해서는 '일-삶-교육-여가'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지역의 중심지가 대상이 되어야 함
 - 인구감소 시 지역의 동·읍 지역
 - 인구감소 군 지역의 읍 지역
 - 면 소재지의 경우 주변 3개 이상 면의 중심지로 인식되는 곳에 위치한 지역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읍·면·동 거점*을 '일자리 연계형 청년혁신타운'으로 조성하여 청년혁신 복합공간으로 변화
 - 청년 정주·활동 거점(읍·면·동 소재지) + 청년 일자리(산단, 기업)
- (스마트 교육 및 지원센터) ICT 기술교육과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하여 청년의 디지털 전환 역량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중심지를 스마트타운으로 탈바꿈
 - 지역청년의 ICT 기술교육·사업화를 위해서는 '대학-타운', '도시-농촌'간 교류 및 연계를 위한 지역차원의 지원사업 시행

- 사회진입기에 있는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청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산학 컨설팅’ 및 ‘스마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청년들의 수도권 이전시기는 주로 대학진학(20~24세),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시기(25~29세)

-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지원(원격 서비스, 배송·유통, 주거 및 생활서비스 등)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의 취업·창업 지원

- (취업·교육) 지역취업 매칭서비스, 기업의 니즈에 맞춘 교육·훈련, 지역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취업 인센티브 제공 등

- (지역기업 연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공공의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

○ (스마트 청년몰) 지역상권(전통시장, 유흥공간, 점포 등 포함)과 온라인 청년몰을 통해 지역 내·외의 청년교류와 창업 활성화

※ (안양시 청년몰 사례) 청년상인을 시장으로 유입 전통시장에 차별화 마케팅을 실시하고, 13개 점포의 유흥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지원

■ 사업목표

정량목표		정성목표	
내용	평가방법	내용	평가방법
스마트 지원센터 조성	공정률	청년 활성화 정도	5등급
스마트 메이커스페이스	공정률	메이커스페이스 프로젝트 활성화	5등급
스마트 청년몰 조성	공정률	지역활성화에의 기여도	5등급
기업연계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	5등급		
스마트교육 운영	5등급		
청년 주거지원	공정률·지원수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지방비	기금	-	2,500	2,500	2,500	2,500	10,000
	소계	-	1,750	1,750	1,750	1,750	7,000
	도비	-	875	875	875	875	3,500
	시군비	-	875	875	875	875	3,500
민간		-	-	-	-	-	-
총계		-	4,250	4,250	4,250	4,250	17,0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지역수요 맞춤지원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대상, 소규모 시설에 콘텐츠를 결합해 부가가치 창출	개소당 30억 (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스마트 챌린지 (국토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기존 도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	분야별 상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도시문제 해결

주1. 스마트챌린지 지원규모(개소당) : 도시전역 215억(예비 15억, 본사업 200억), 중소규모 30억(국비 50%), 대학아이디어 15억(국비100%), 우수 서비스(40억/20억, 국비50%)

■ 기타

- (사업사례) 김포시 스마트타운 플랫폼과 안양시 청년몰 조성사례



자료 : 일간경기(2014.07.22.).

[그림 5-2] 김포시 스마트타운 플랫폼 이미지 사례



자료 :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https://www.anyang.go.kr>)).

[그림 5-3] 안양시 청년몰 조성 사례

2) ESG 로컬 혁신경영 전문매개자 육성

■ 배경 및 목적

- 환경, 사회, 투명구조 중심의 글로벌 트렌드인 ESG*관점의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를 지역에서 연계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

· ESG : E(환경Environmental), S(사회Social), G(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가치까지 포함 글로벌 기업 평가기준. 2006년 코피아난 UN사무총장과 글로벌 주요연기금발표 사회책임투자원칙(PRI)부터 시작, 2015 UN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약에서 강조, 2018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의제로 등장하면서 급격히 부상

· 국내 ESG투자금액은 2조 7천억원 급상승(2018), 그린뉴딜정책 추진(2025년까지 약 73조원 예산 투입)

- ESG 지역 경영 매개자를 통한 ESG경영 역량강화 및 지역 혁신 비즈니스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통한 지역 혁신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 자자 및 글로벌 기업 요구로 빠른 시일내 급속히 지역대응 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로컬의 선제적 대응으로 글로벌을 공략하는 혁신적 플랫폼 강화전략 사업 임.

· 국내기업 300개사 대상 ESG대응기업 15.7%에 불과, 공급망 ESG리스크 대응 미흡 (2021 대한상공회의소한국생산성본부 『ESG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조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비) 1,850백만 원(기금 650, 도비 600, 시군비 600)
- (사업위치) 전북도내 인구소멸 지역 10개 시·군 중심(동북권, 동남권, 서부권 중심)
 - (사업규모) 각 지역 연간 10인의 전문가 육성 및 지역별 배치
- (주요사업)
 - ESG 로컬경영 전문매개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50명) : 로컬 소셜자원 측정 및 소셜밸류 비즈니스 모델

실습 지원

- ESG 혁신경영 원스톱 교육컨설팅 지원 운영(연간 300건) : 전북형 ESG 평가지표 해석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맞춤형 진단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기업 내 조직구성 및 ESG역량강화 직원교육 지원

■ 사업내용

- (ESG 로컬 경영 전문매개자 육성프로그램 운영) : ESG라는 사회적 가치사슬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교육과 기획활동 역량강화
 - 현장형 전문 ESG를 적용할 수 있는 매개자 역량강화 중심
 - 로컬 소셜자원 측정 및 매개 교육, SV(소셜밸류(Social Value)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이해 및 실습 워크숍 운영
 - 지역대학연계 관련 경영,창업 연계 학부, 대학원생 연계 운영



- (ESG 혁신경영 원스톱 교육컨설팅 지원) ESG 평가지표 해석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진단 맞춤형지원 및 조직 ESG 직원역량강화교육 지원, 지원사업 연계 등
 - 전라북도 창업기관협의회(25개 기관) 및 전북테크노파크 등의 지역 기업 육성기관 연계 기업진단 운영
- (ESG 평가지표 해석 가이드라인 제공) K-ESG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21. 12월 발표) 연계 지원

구분	주요항목
정보공시(5)	· ESG 정보공시 방식, 주기, 범위 등
환경(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 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 (기업진단 맞춤형지원: 전북지역 기업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 구조전환 대응 관련 설문조사 〉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 : 85.4%가 필요하다고 응답(매우필요 44.9% + 필요 40.3%)
- 사업 구조전환 준비 현황 : 26.9%가 계획에 따라 진행 중
- 사업 구조전환시 애로사항 : 자금부족 48.4%, 인력부족 17.9%,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족 7.5%, 기술부족 6.9%, 정보부족 6.6%, 디지털 인프라 부족 6.0%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1,000개사 대상 설문, 유효응답은 301개사(조사기간 : '21.11.11~23)

- (조직 ESG 직원역량강화교육) 기업 가치경영 사례, 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성 투자, 국내 현황, 기업내재화 전반적 관점 전환 등

■ 사업목표

정량목표		정성목표	
내용	평가방법	내용	평가방법
ESG 매개자 육성(50명) *연간10명 5년간	활동실적	ESG전문인력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 강화	활동실적
ESG 혁신경영 원스톱지원(10건*10곳*5년간) 500건	활동실적	글로벌 혁신경영 플랫폼 전북의 위상 강화	활동실적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130	130	130	130	130	650
지방 비	소계	240	240	240	240	240	1,200
	도비	120	120	120	120	120	600
	시군비	120	120	120	120	120	600
민간		-	-	-	-	-	-
총계		370	370	370	370	370	1,85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 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 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정부부처 관련사업(구조혁 신지원센터 등)	로컬의 인적 경쟁력강화 글로벌을 대응하는 전략으로 ESG 핵심 매개자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	지역대학연 계 우수 ESG 핵심 전문매개인 력 육성	전문매개 인력 육성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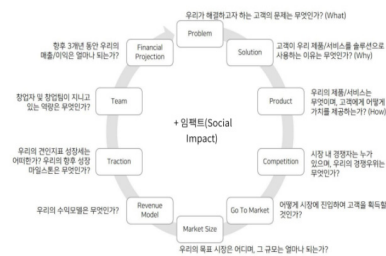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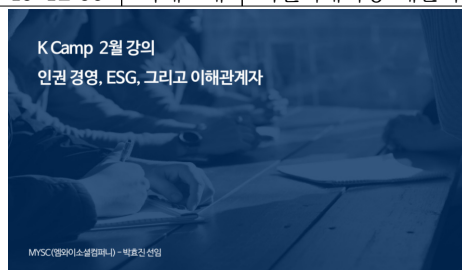
- (사업사례) ESG 액셀러레이터 양성 기본과정 : 전체 2주 과정,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22.4월)

[표 5-1] 온라인 과정(안)(18시간)

커리큘럼	
[코스1] 디자인씽킹으로 SV-BM 준비하기	1-1. SV-BM, 왜 디자인씽킹인가?
	1-2. 디자인씽킹은 어떻게 SV-BM에 기여할까?
	1-3. (DISCOVER) 관찰과 공감을 통한 SV 발굴
	1-4. (DISCOVER_사례1) 예자이 근무시간 1%의 비밀
	1-5. (DISCOVER_사례2) 인튜이트, 관찰을 통해 SV 기회를 발견하다
[코스2] 디자인씽킹으로 SV-BM 기회찾기	2-1. (DEFINE) 문제정의를 통한 SV 탐색
	2-2. (DEFINE_사례1) SAP는 어떻게 SV기회를 발굴했을까?
	2-3. (DEFINE_사례2) 와비파커는 어떻게 SV 문제정의를 했을까?
	2-4. (DEVELOP) 문제정의에서 발산하여 SV 아이디어 찾기
	2-5. (DEVELOP_사례1) 밸리스는 어떻게 SV를 개발했을까?
	2-6. (DEVELOP_사례2) 플레이31은 어떻게 SV 아이디어를 개발했을까?
[코스3] 디자인씽킹으로 SV-BM 실행하기	3-1. (DELIVER) 불확실성 가운데 SV-BM 실행전략 찾기
	3-2. (DELIVER) 디자인씽킹으로 소셜 린캔버스 준비하기
	3-3. (DELIVER_사례1) 고요한택시는 어떻게 SV-BM을 개발했을까?
	3-4. (DEVELOP) SV-BM 가설검증 방법과 MVP 테스트(1/2)
	3-5. (DEVELOP) SV-BM 가설검증 방법과 MVP 테스트(2/2)
	3-6. (DELIVER_사례2) 엔젤스윙은 어떻게 SV-BM 검증을 시작했을까?
	3-7. (DELIVER_사례3) 바이맘은 어떻게 SV-BM을 발전시켰을까?

[표 5-2] 오프라인 실습 워크숍 과정(안)(7시간)

커리큘럼		
10:00-10:30	체크인	나는 액셀러레이터: WHY, HOW, WHAT
10:30-11:00	강의	액셀러레이터의 일년 따라 가보기(MYSC 사례중심)
11:00-11:40	토크쇼	초보 경험자, 중급 경험자가 말하는 액셀러레이터 경험 TALK
11:40-12:00	과제소개	액셀러레이팅 제안서 모의 과제 소개



[표 5-3] ESG 관련 강의 내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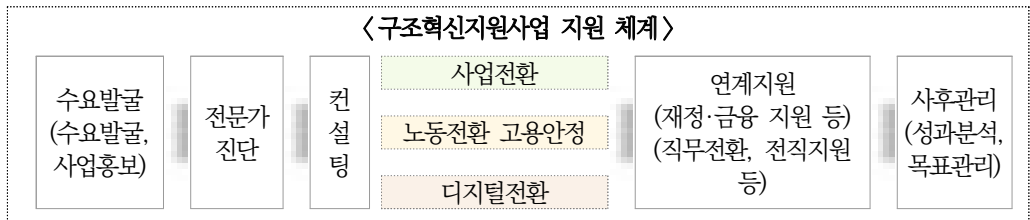
ESG 관련 강의 내용 사례		
13:00-14:00	사례연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BEST PRACITCE 이해하기
14:00-14:30	강의	액셀러레이팅 설계의 기본과 가이드라인
14:30-16:00	실습	액셀러레이팅 제안서 모의과제 작성
16:00-17:20	발표	액셀러레이팅 제안서 모의과제 발표 및 피드백
17:20-18:00	회고	배운점/느낀점/실천할 점 공유 및 수료증 전달



- (사업사례)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센터 : 2022 중기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범부처 사업 구조혁신 전담기구로 경기를 시작으로 22년 10개소 설립 계획

※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경기), 고양), 서부권(대전, 광주, 전주), 동부권(대구, 부산, 창원)

- (주요내용) 수요 발굴(자동차, 화학 등 주요산업분야 중심) 및 진단 상담 컨설팅(사업, 노동, 디지털 전환), 부처별 지원 사업 연계



3) 전북형 마을자치연금 “마을자치연금발전소” 설치 운영

■ 배경 및 목적

- 농촌지역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체 활력저하와 인구한계마을이라는 마을소멸의 문제에 직면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2%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전라북도 과소화마을(2016년 기준)은 경계마을 353개로 5.1%, 심각마을 301개로 전북마을 전체의 4.3%에 달함
-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동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수익모델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만들어진 소득의 일부를 농촌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완으로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이 새로운 마을활성화의 대안 부각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률은 35.6%로 전체(70.9%)의 절반에 불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비) 2,000백만 원(기금 1,000, 도비 500, 시군비 500)
 - 익산의 성당포구 마을자치연금모델 10개 시군으로 확대. 1개 마을 당 최대 200백만 원 지원
- (사업위치)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 10개 시·군당 1개소 마을을 선정
- (주요사업) 태양광발전수익과 마을공동체 사업소득을 통한 마을자치연금기금조성으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10만원 마을자치연금 지급, 태양광 마을자치연금발전소 10개소 설치지원, 마을공동체사업 10개소 육성지원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지방비	기금	200	200	200	200	200	1,000
	소계	200	200	200	200	200	1,000
	도비	100	100	100	100	100	500
	시군비	100	100	100	100	100	500
민간		-	-	-	-	-	-
총계		400	400	400	400	400	2,0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농촌협약 (농림부)	농촌협약에 마을자치연금을 위한 수익시설 계획 지원	300억 (국비)	농촌공간 전략	생활권활 성화
2	도시재생뉴딜 (국토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사업 연계	50조 (기금, 공기업)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복지
3	새마을사업 (국토부)	민관협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	-	-	-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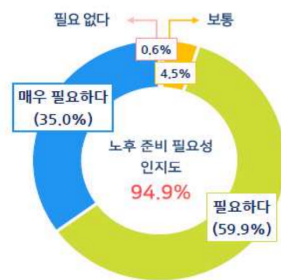
- 전라북도는 2021년 전북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연구를 수행한바 있음
- 전라북도 익산시 2019년 국민연금공단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익산시,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자치연금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8월부터 마을주민 28명에게 월 10만원의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한 성공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나. 공간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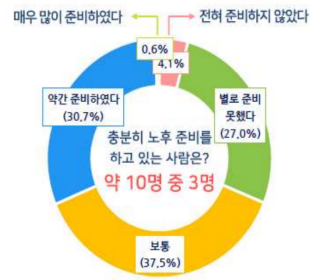
1) 은퇴자 교육연수센터

■ 배경 및 목적

- 2020년 기준 중장년층 인구는 2,008만 명으로 전년대비 10.7천명 증가하였고 총인구대비 40.1% 차지함. 전라북도의 중장년층 인구는 68.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9.1% 차지
- 중장년층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적절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



[그림 5-5] 노후준비 필요성 정도



[그림 5-6] 노후준비정도

- 은퇴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은퇴세대(베이붐세대)의 68%가 임금근로자이고, 임금근로자 중 약 50%가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은퇴후 적절한 직업교육을 통한 지원 없이는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이 어려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4개년)
- (사업비) 8,000백만 원(기금 8,000)
- (지원대상) 전주 등 은퇴자 교육훈련 인프라 연계적합지역
 - 은퇴자 노후준비관련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중으로 연금공단과 연계한 교육훈련인프라 구축 필요
 -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중앙노후지원센터 운영 예정

■ 사업내용

- 은퇴자 대상 노후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등을 통한 미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 은퇴자 직업훈련교육관 : 은퇴자의 전직경험 활용 직업훈련 연계, 취업 및 창업 관련 상담
 - 은퇴자 창업 및 창업체험관 : 은퇴자가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설치 운영
 - 은퇴자 전문 인력 양성 교육관 : 은퇴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베이비붐 세대 보수교육
 - 은퇴자 인력정보은행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계 은퇴자 전직 경험 관련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은퇴자 구인구직 정보관리

■ 사업목표

정량·정성 목표	평가방법
은퇴자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이수자 10%	은퇴자 수 및 교육이수생 현황
은퇴교육이수자의 직업 및 취업연계율 20%	은퇴자 사후관리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100	300	4,000	3,600	-	8,000
지	소계	-	-	-	-	-
방	도비	-	-	-	-	-
비	시군비	-	-	-	-	-
민간	-	-	-	-	-	-
총계	100	300	4,000	3,600	-	8,0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국민취업지원제도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일괄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	-	신중년 특화 훈련 교육 및 세대융합 형 기술창업 확대	-

2) 이동마켓(이동점방) 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농촌지역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마켓이나 슈퍼 등 생활편의시설은 부족한 상황
 - 면지역의 50%이상이 슈퍼마켓이나 이미용실 등 생활편의시설 부재(농촌경제연구원, 2017)
- 농촌지역의 부족한 생활편의시설로 인해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동마켓 운영을 통한 생활편의 도모 필요
- 이동마켓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여 부족한 농촌편의시설 확충 및 청년일자리 창출 견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3개년)
- (사업비) 2,000백만 원(기금 1,600, 시군비 400)
- (지원대상) 농산어촌 중 슈퍼 등이 없는 지역

■ 사업내용

- 고령인구가 많고 슈퍼 등이 없는 인구위기지역에 이동슈퍼마켓 운영
 - 이동마켓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이동마켓의 운영주체로서 청년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이동마켓 차량 구입 : 인구위기 지역 시군당 1개 이상 이동마켓 차량 구입
 - 지역생산물 연계 이동점방 운영 : 지역특산물과 연계하여 이동점방 생활필수품 판매

■ 사업목표

정량·정성 목표	평가방법
인구위기 시군 이동점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50%	시군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현황
인구위기 시군 이동점방 운영 50%	이동마켓 차량 운행실적
이동점방 내 지역농산물 연계율 30%	이동점방 판매내역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	-	400	400	800	1,600
지방비	소계	-	-	-	-	-	-
	도비	-	-	-	-	-	-
	시군비	-	-	100	100	200	400
민간		-	-	-	-	-	-
총계		-	-	500	500	1,000	2,0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농림부)	농산어촌 인규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5,000	농촌중심지 및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한 지역소득증대 사업	-

3)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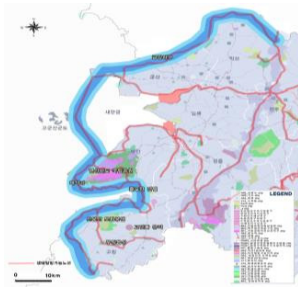
- 생태관광지 육성, 1000리길 조성 등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생태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 간 상호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환경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힐링관광 관심 증가 등 걷기여행길(도보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 육성한 1000리길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및 체류 인구유입 여건 조성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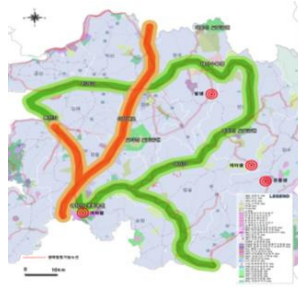
- (사 업 명)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개년)
- (사 업 비) 60,000백만원(기금 30,000, 시군비 30,000)
- (사업위치) 10개 시·군(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
- (주요내용) 우수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에코캠핑 삼천리길과 캠핑장 조성,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 마련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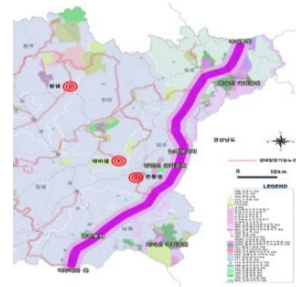
- 우수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산악생태(진안-무주-장수-남원)천리길, 하천·역사생태(임실-순창-정읍-김제) 천리길, 해안생태(고창-부안)천리길



[해안생태문화축]



[하천 및 역사생태 문화축]



[산악생태문화축]

-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캠핑장 조성 : 구간별 에코 캠프장 조성, 마을별 에코민박 구축, 에코 캠핑장 및 에코민박 운영체계 구축 등



- 역사유적지, 아름다운 자연환경,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 마련

- 해외 대표사례 :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장거리길 “산티아고”) 대표적인 길은 “카미노 프랑세스”로 프랑스 생장피에드포르(Saint-Jean-Pied-de-Port)에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약 800km를 걷게 되며 30~35일 정도 소요됨, 199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숙박시설 “알베르게”) 순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는 크게 알베르게, 호스텔, 펜션, 호텔 등의 종류가 있음



[카미노 데 산티아고]



[알베르게]

■ 사업목표

정량·정성 목표	평가방법
삼천리길 및 캠핑장 조성 : 10개 시·군* *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삼천리길* 조성 시·군, 천리길, 생태관광지 등 방문객 수 증가	사업 준공 방문객 수 조사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	250	10,000	10,000	9,750	30,000
지	소계	-	250	10,000	10,000	30,000
방	도비	-	-	-	-	-
비	시군비	-	250	10,000	10,000	30,000
민간	-	-	-	-	-	-
총계	-	500	20,000	20,000	19,500	60,0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단위: 백만 원)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전북도)	14개 시군 44개 노선 405km 노선 유지관리, 걷기행사, 홍보 등	392 (도 70 시군 322)	천리길 노선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2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환경부)	12개 생태관광지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 시군별 생태관광지 조성	7,600 (균이3,80 0 도 1,900 시군1,900)	생태관광 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방안 용역 (전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지표개발 장거리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자원조사(생태관광지, 천리길, 국가탐방로 등) 생태문화탐방 자원 연계 노선(안) 제안	76 (도 76)	생태문화 탐방원 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다. 인구활력

1) 전북형 육아공동체 육성

■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 변화 :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주민인구의 감소로 연계되고 있어 미래 생산 가능한 인구의 확보를 위한 지역 내 지원 및 대책 마련필요 시점
-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한계 : 인구증가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 및 준비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세대 확보를 위한 한계직면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 돌봄시스템으로 인한 지원정책이 운영 중에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운영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 결혼 후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었던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난 현 시점의 인식에 대한 변화 및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이 암묵적으로 강요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 시스템 마련을 통한 여성 질적 노동력 확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비) 5,000백만 원(기금 5,000)
- (지원대상) 개별 지역당 1개, 매년 2개(총 10개)

■ 사업내용

- 결혼·임신·출산·보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보육의 공공성 확대
 -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차원의 돌봄문화 확대, 지역단위 돌봄시스템 구축

- 농산촌 지역 의료접근성 증진, 임산부·영유아 체계적 건강관리 실현
-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적 인프라, 질적 수준 증진
- 일-가정 양립, 부부의 공동육아 촉진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마련
 - 중·소규모 기업의 공동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으로 직장맘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보육기반 확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증대
 - 전 사회적 협력을 통한 가족사랑 전복 만들기

■ 사업목표

정량목표		정성목표	
내용	평가방법	내용	평가방법
예산 집행의 합리성 및 타당성	-	공동체 운영의 정합성	-
공동체 양성 달성률	-	주민수요 반영	-
기초 및 광역 목표 달성률	출산률 제고 및 만족도 증가	삶의 질 증가	-
일자리 창출 정도	-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지 방 비	소계	-	-	-	-	-	-
	도비	-	-	-	-	-	-
	시군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단위: 백만 원)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 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 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고용노동 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2,000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2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개사업	-	통합돌봄모델 확산	-

■ 기타

○ (사업사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저하하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건 마련
- 사회소외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지속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 (사업사례) 귀촌인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

- 지역 내 쇠락한 구도심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 및 교류의 장을 형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도록 유도

○ (사업사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유동인구 유치

-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관광객)를 유치. 특히, 관광 유동인구는 소비와 유통을 증진시키며 타 산업에 비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

2) 전북형 갭이어(gap year) “전북 인 게버” 캠퍼스 조성

■ 배경 및 목적

-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던 갭이어(Gap year)가 직장간 휴식과 직장 사이의 유예기간까지 확장되면서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
- 갭이어 기간에는 여행이나 역사문화탐방 등의 지적인 활동이외에도 자원봉사나 레저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
- 국내 갭이어는 대부분 스펙위주의 활동으로 짜여져 있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
 - 전북형 갭이어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청년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기회제공
 - “게버”는 전라도 사투리로 “~것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갭이어”와 발음이 비슷해 전북형 갭이어 프로젝트명으로 제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비) 2,200백만 원(기금 1,400, 도비 400, 시군비 400)
- (사업위치) 인구감소지역 중 1곳을 공모로 선정
- (주요사업) “전북 인 게버”캠퍼스 조성

■ 사업내용

- 갭이어 교육공간, 공동 주거 및 식사공간, 문화공간(도서관, 카페), 야외 체험공간, 사무공간 등

- 운영조직 : 전북 청년단체에 민간위탁, 초기 조성 이후 운영비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 운영프로그램 : 3개월 단위 주제선정(요리, 디자인, 공예, 웹툰 등), 기술공유·최신허브교육·팀프로젝트 등 교육과 실습위주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안 : 한 기수 당 30명 모집, 최소 입소비 책정, 공동생활

■ 사업목표

정량·정성 목표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가자 매년 120명(분기별 30명)	-
청년 일자리 창출 10명(운영조직 신규일자리)	-
전북 인 계버 캠퍼스조성 1개소	-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100	1000	100	100	100	1,400
지	소계	-	500	100	100	800
방	도비	-	250	50	50	400
비	시군비	-	250	50	50	400
민간	-	-	-	-	-	-
총계	100	1500	200	200	200	2,2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청년마을 만들기 (행안부)	청년의 지역 정착, 교류, 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600	조성 및 운영연계	시너지 창출
2	청년마루 (전라북도)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청년 공간을 조성 운영	50	인력운영 연계	시너지 창출

3) 전북이주코디네이터 J링커(Linker) 육성지원

■ 배경 및 목적

- 지역이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40-50대 신중년 등이 지역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갈등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전북지역 이주코디네이터의 육성과 활동지원 필요
 - 귀농귀촌이후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역귀농하는 사례는 매년 귀농인구의 30%에 달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비) 4,250백만 원(기금 2,550, 도비 850, 시군비 850)
- (사업위치)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 (주요사업) 전북이주코디네이터 양성프로그램 운영, 전북이주코디네이터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사업내용

- 전북이주코디네이터 양성프로그램 운영 : 지역이주 지원 사업 현황, 생활불편 및 갈등관리, 수도·전기·농기계수리 등 기술 교육 등
- 매년 10명 총 50명 육성 후 마을에서 활동
- 전북이주코디네이터 주거지원 : 빈집 리모델링 개소당 5천만 원
-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1인당 년 2,500만원

참고 사례

◇ 순천시 '청·장년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

- 대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19세~50세 미만 청·장년
- 선정인원: '20년 8개 마을에서 8명 선정, '21년 9명 추가 선정
- 사업내용: 순천시 읍·면 지역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50세 미만의 청·장년이 맥가이버 공작소에 거주하며 독거 노인,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
- 지원내용: 5년간 주거공간 무상 제공, 정착지원금 약 월 185만원 제공, 맥가이버 양성공간인 '공유대장간' 설치를 통해 맥가이버 간 교류 확대, 맥가이버 활동을 위한 교육(수도, 전기, 농기계 등), 귀농·귀촌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 지원 등



귀농·귀촌을 꿈꾸고 희망하는 청·장년 맥가이버 지원자 모집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서 맥가이버 교육 주거공간까지 제공



모집대상 만 50세 미만 청·장년
지원조건 순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
지원내용 주거공간 지원
맥가이버 작업공간 지원
인건비 지원(월급으로, 6개월)
맥가이버 교육 및 관농가촌 관련 교육
모집기간 2021.01.15. ~ 01.24.
※ 세부 모집요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지방소멸대응대책 수립연구.

■ 사업목표

정량·정성 목표	평가방법
이주코디네이터(청년일자리) 50명	-
전북 역귀농 10% 저감	-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510	510	510	510	510	2,550
지	소계	340	340	340	340	1,700
방	도비	170	170	170	170	850
비	시군비	170	170	170	170	850
민간	-	-	-	-	-	-
총계	850	850	850	850	850	4,25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귀농귀촌 정착지원 및 거주지원(농림부)	귀농 창업자금 융자지원 및 귀농인의 주택 신축 및 구입융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	-
2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전라북도)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및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	-	-
3	시군별 귀농귀촌지원사업	주택, 창업, 영농시설, 출산 지원 등	-	-	-

■ 기타

- 전라북도는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경영, 영농기술,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갈등해결 등 분야별 전문가 111명으로 구성된 귀농귀촌지원단을 운영 중으로 이와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시너지효과 창출기대

4) 지역형 문화레지던시 ‘마을에서 동거동락’

■ 배경 및 목적

- 최근 5년 간 전라북도 인구 감소는 평균 15,600명 정도로, 인구 대비 1%씩 매년 줄어드는 추세(전라북도 인구통계)
- 더불어, 전북의 인구유입 통로인 귀농·귀촌 인구도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비율임. 귀농인구는 전국 12%를 차지해 높은 편이지만 귀촌은 4.3%에 불과해 낮은 편(2020년 기준)
- 전북의 인구유입 통로가 될 귀촌인의 통로를 확대하고, 접근방법을 다양화하여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특히, 청년들의 ‘문화귀촌’의 유입 기회를 적극 확대 필요
 - 2022년 기준, 전국 귀촌가구 중 1인 가구는 74.7%(257,781가구), 2인 가구는 16.2%(55,865가구)로 높게 나타남. 이는 귀촌인의 연령별 특성과 맞물림. 20대 이하가 26.3%(125,627명), 30대 21.6%(103,285명), 40대 16.4%(78,384명)로서 청년세대가 64.3%로 높게 나타남(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 청년 문화활동가의 활동기반이 될 유희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청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 발굴 필요
 - 완주군의 경우, 완주문화재단 <예술인 한 달 살기>는 연간 10여 명의 예술인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도내 외 예술교류와 지역민 소통프로그램이 운영됨. 또한 '21년 조성된 완주청년마을 <다음타운>은 타 지역 청년의 농촌살기 프로그램이 '22년부터 추진 예정
- 이에, 청년 문화활동가(예술가, 문화기획자, 문화관련 활동가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라북도 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활동기반을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북형 모델발굴 필요
 - 도내 인구소멸지역인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계별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 명소로 육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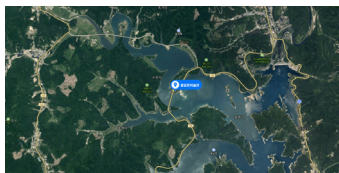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비) 2,000백만 원 (기금 2,000 / 10개 시·군 각 200백만 원)
- (사업위치) 전라북도 10개 시·군(인구감소지역)

※ 위치선정 이유 : 지역별 유희공간(빈집, 창고, 마을회관, 방범초소, 보건소 등)

진안군 예시

- 사업기간 : 2023년 ~2024년
 - 사업위치 :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용담호 미술관(군 소유)
 - 건물규모 : 지상2층(224평)
 - 사업비 : 6억(1차년 3억, 2차년 3억)
 - 시행주체 :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및 문화예술단체 등
- 사업내용 : 문화레지던시 거점공간 조성, 청년문화활동가-마을유희공간 연계, 휴공간 문화재생 활동 및 지역민 소통프로그램 운영, 도내·외 거점공간 활동 교류, 전라북도 문화레지던시 성과공유 대회 개최



■ 사업내용

- 문화레지던시 커뮤니티 공간 선정 및 조성
 - 조성기간 : 2022년 ~ 2026년
 - ※ '22.11월~12월 지자체 추천 및 선정, '26까지 공간조성

- 사업대상 : 도내 10개 시·군 지자체 추천 유휴공간

※ 빈집, 창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방범초소, 보건소 등

- 소요예산 : 1억원 이내

- 주요내용 : 시군 운영 공간 및 운영주체 선정

※ 공간선정 : 지자체별 유휴공간 및 운영주체 추천, 심의·컨설팅 후 선정

※ 운영주체 : 운영주체 교육 및 전문가컨설팅

※ 공간조성 : 문화레지던시 가능 공간 리모델링(숙식, 커뮤니티, 교육, 창작이 가능한 공간 등)

- 추진절차



○ 운영주체 및 주민조직 체계 마련

- 운영기간 : '23. 1 ~ 12월

- 주체선정 : 시군별 지자체 선정(사회경제조직 및 문화예술단체 등)

- 주체별 역할

※ (운영기관) 사업운영 총괄, 대내외 네트워크, 공간운영, 전문가 컨설팅, 참여자 및 주민조직 교육 등

※ (코디네이터) 문화레지던시 운영, 참여자 관리, 창작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조직) 공간운영 관리, 주민문화활동 협력운영

※ (지자체) 행정지원, 성과관리 및 후속지원 등

○ 청년문화활동가-마을거점공간 매칭 및 레지던시 운영

① 도외 청년문화활동가 모집

※ 참여내용 : 전북형 문화레지던시 참여

- ※ 참여기간 : 1개월 또는 3개월(2개 유형)
- ※ 모집규모 : 100명(팀) 정도(시군별 10명(팀) 정도)
- ※ 지원자격 : 전라북도 외 거주자 중 청년문화활동가(만39세 미만)
- ※ 지원내용 : 창작활동비(1인 기준, 월30만원), 거주 및 창작공간 제공, 커뮤니티 및 지역민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등

② 마을기반 창작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이 무대'

- ※ 운영기간 : 2023. 5월 ~ 11월
- ※ 운영내용 : 문화활동가(예술인, 지역문화기획자 등)의 마을대상 창작활동, 참여자별 지역특성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문화적 이슈 및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마을을 무대로 창작 결과물 공유



자료 : 완주문화재단(2019). 2019 완주한달살기 이야기.

[그림 5-7] 완주 한 달 살기

③ 지역민 공유프로그램 운영

- ※ 운영기간 : 2023. 5월 ~ 11월
- ※ 운영내용 : 지역민 참여, 협업 가능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민의 문화수요 파악,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 문화활동 기획·운영



자료 : 완주문화재단(2019). 2019 완주한달살기 이야기.

[그림 5-8] 완주 한 달 살기

④ 추진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운영

- 운영기간 : 2023. 2월 ~ 11월
- 운영내용 : 분야별 전문가 매칭(유희공간 조성, 문화레지던시 운영,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 등)

⑤ 문화레지던시 성과공유 대회 개최

- 운영기간 : 2023. 11월 ~ 12월
- 운영내용 : 도내 10개 시군의 문화레지던시 성과 공유(지역별 문화레지던시 성과공유,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크 및 지속가능성 토론, 행정, 공동체활동 조직, 문화예술단체 등 유관기관 교류)

■ 사업목표

정량목표		정성목표	
내용	평가방법	내용	평가방법
청년예술가 참여자	참여자 수	프로그램 참여 만족	만족도 조사
지역민 일자리창출	참여자 수	지역경제효과	만족도 조사
지역민 활동참여 기회	프로그램 수	지역민 문화향유 만족도	만족도 조사
지역 방문기회 확대	프로그램 참여자 수	전북 문화자원 대외홍보	SNS 노출빈도, 노출내용 등

■ 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400	400	400	400	400	2,000
지방비	소계	-	-	-	-	-	-
	도비	-	-	-	-	-	-
	시군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400	400	400	400	400	2,0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의 창업공간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여가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공익적 공간 창출	개소당 4.5억원 (국50%, 지50%)	완주청년마을 청년거점공간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공동체 활동에 참여, 문화귀촌 인식제고
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지역 청년 유출방지, 도시 청년 지역 정착을 지원, 인구감소 지역 내 활력 제고	지역별 5억원		

■ 기타

○ (사업사례)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 : 마을형 레지던시 사업

- 목적 : 마을 유희공간 활용해 예술가의 작업공간 제공 및 지역민과의 소통과 네트워크 토대 마련
- 사업대상 : 완주지역 외 거주자 및 완주지역 유희공간 제공자
- 거주기간 : 1개월 또는 3개월
- 지원사항 : 거주공간 및 창작지원금(월 30만원), 장비 지원



○ (사업사례) 고창 스테이 프로젝트 : 마을 레지던시 지원사업

- 목적 : 고창자원을 매개로 창의 문화예술 역량 발휘, 지역민과 예술적 소통 및 네트워크 토대 마련
- 사업대상 : 고창지역 외 거주자 및 완주지역 유희공간 제공자
- 입주공간 : 고창군 월봉마을 '책마을해리'
- 거주기간 : 개인은 최대 3개월, 그룹은 최대 2개월
- 지원사항 : 거주공간 및 창작지원금(1인기준, 월 30만원), 전시공간 지원



○ (사업사례) 제주문화예술재단 : 빈집프로젝트 지원사업

- 목적 : 방치된 빈 공간에 예술을 결합하여 문화자원으로 재창조
- 지원사항 :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진행비 등



○ (사업사례) 일본 : 가나자와 유와큐 창작의 숲

- 목적 : 온천지역의 옛 건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삼림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서 전통공예(쪽염색, 염직, 스크린인쇄, 판화 등)를 기반으로 운영
- 운영주체 : 가나자와예술창조재단
- 운영장소 : 전통여관(호텔), 저택, 창고 등 활용
- 공간구성 : 공방 4동, 교류연수동(4개 연수실), 숙박동(5실, 22명 수용), 창작의 숲 갤러리, 교류광장 및 산책로 등
- 주요내용 : 전통예술 및 자연체험, 예술가 레지던시(창작공간, 지원금 지원), 전시 및 교류프로그램 운영



자료 : sousaku-mori 홈페이지(<https://www.sousaku-mori.gr.jp/>).

5) 워케이션 벨리 조성

■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증가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하는 업무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 통계청(2021)에 의하면 유연근무참여자는 2015년 전체 취업자의 4.6%에서 2020년 14.2%로 증가하였으며 이런 증가의 3분의 1 이상이 2020년 한해에 이루어 짐(한국일보, 2021.2.4.)
- 한국경영자총협회(2020)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대기업 중 88.4%의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교대순환방식과 재택근무 등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택근무 활용에 대해 53.2%의 긍정적 평가(한국경영자총협회, 2020)

○ 일하는 장소에 제약이 없는 리모트워크의 부상

-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는 'telecommuting', 'work from home', 원격근무는 'telework', 'remote work'의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의미로 정의됨(강민정 & 박선미, 2020)

[표 5-4] 원격근무(remote work)의 정의

국가	정의
유럽	고용 계약 및 고용 관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사(고용주가 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원격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구성·수행하는 형태(Eurofound, ILO)
일본	IT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자택, 위성사무소, 원격근무 센터 등에서 정규직으로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고용 형태(총무성)
미국	직원들이 통상의 유급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이 인정한 자택, 지정된 원격근무 센터의 대안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제 유형 중 하나(인사관리처)
한국	ICT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 워크센터, 재택근무, 스마트 오피스, 유연근무제 포함(과기정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 강민정 & 박선미(2020).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울 이슈 리포트 2020-0호. 서울디지털재단.

- 재택근무는 별도의 업무공간에 출근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방식이며, 원격근무는 업무공간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가능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개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기업문화에서는 선호되지 못하였던 원격근무의 도입이 촉진됨. 그동안 발전되어 오던 정보통신기술은 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

-
- 원격근무는 근로자 본인이 필요한 최적화된 환경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내갈등, 보고체계 및 회의 등을 최소화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일의 성과에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회사에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비) 20,000백만 원(기금 10,000, 도비 5,000, 시군비 5,000)
- (사업위치) 매년 2개소, 총 10개소
- (주요내용) 체류형 원격사무소, 순환형 원격사무소, 리모트워크를 위한 사무실과 사무에 필요한 장비구축 등

■ 사업내용

- 원격사무소는 지방에 지사를 설립, 사무실을 두고 본사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도록 하는 원격근무의 한 형태로 체류형 원격사무소(직원 상주)와 순환형 원격사무소(프로젝트별 순환근무)로 구분 가능(김동영, 2021)
- 시군의 유헥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업의 일부 부서를 위한 원격사무소나 개인 차원의 리모트워크를 위한 사무실과 사무에 필요한 장비구축
- 업무공간, 휴식공간, 다이닝공간, 숙소 등 워케이션 근무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 구축
- 기업을 대상으로한 전북 워케이션 유치와 전북 워케이션 밸리를 운영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시·군 및 읍·면·동 내 유헥공간 조사 및 리모델링 지원, 입주희망자와 빈집 연결, 기업 및 인재 유치 등의 역할 수행
- 워케이션 근무자의 휴식과 취미활동 등을 위해 텃밭과 작은 농장을 운영하여 근무자에게 소일거리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위케이션 전복유치와 이들의 다양한 지역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오피스 위치, 시설현황, 주변 휴식시설, 가볼 만한 곳 등이 소개되는 전복 위케이션 맵 제작
-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5G기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사업목표

정량·정성 목표	평가방법
청년일자리 창출 10명	운영조직 신규인력
위케이션 근무자 매년 50명 유치	위케이션 참가자

■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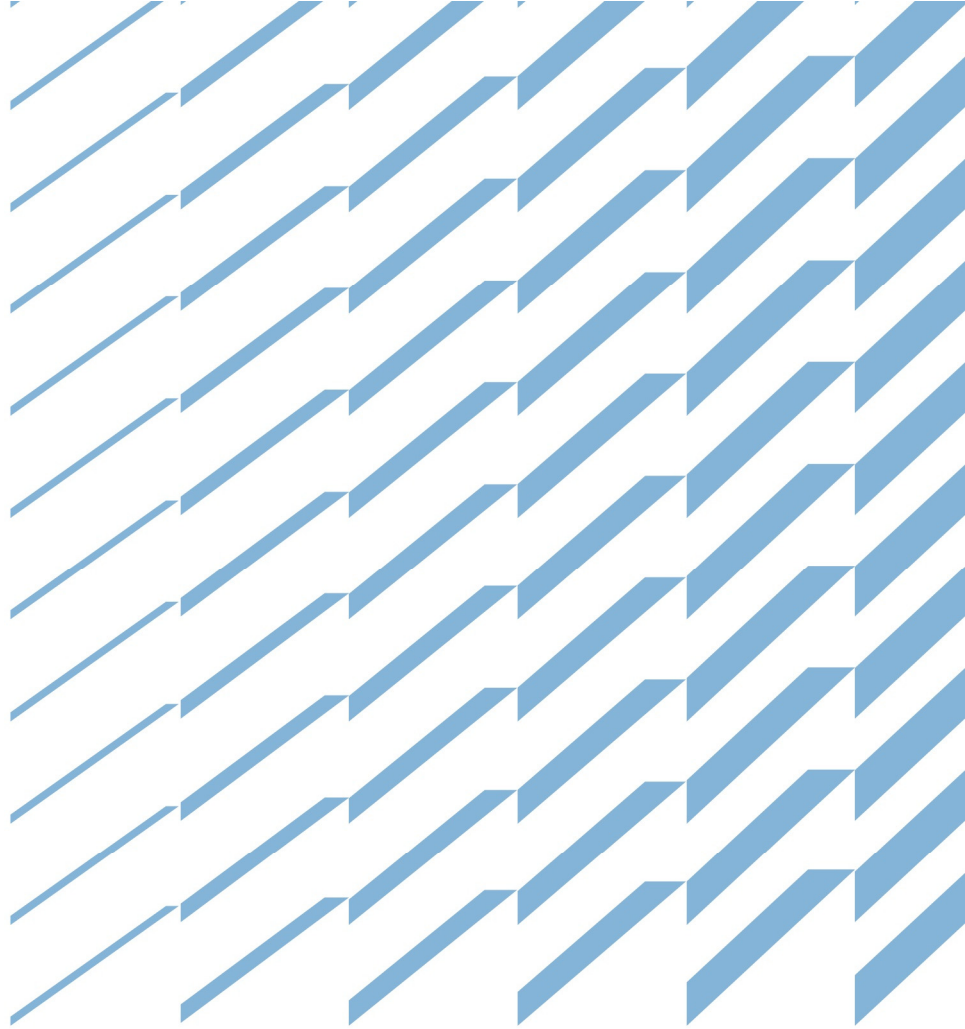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기금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금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지	소계	2,000	2,000	2,000	2,000	10,000
방	도비	1,000	1,000	1,000	1,000	5,000
비	시군비	1,000	1,000	1,000	1,000	5,000
민간	-	-	-	-	-	-
총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 다른 단위 사업과 연계 전략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계사업명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예산	연계내용	연계 기대효과
1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행안부)	도시, 농·어촌 지역에 ICT 활용, 서비스 구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960	5G망 구축	위케이션 기반구축



제6장

결론

1.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1. 결과요약

■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할 예정으로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수립이 필요함
- 인구감소가 현존하는 위험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유입과 유출 억제 등 인구감소 대응과 직접 관련된 사업 중심 추진,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지자체는 정주민족도 개선 및 인구활력도 개선을 위한 사업 중심 추진

■ 인구현황 및 추이

- 전북의 인구는 2010년, 201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으며 2015년부터 감소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전라북도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4세 이하 유소년 비중은 11%,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비중은 66%,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22%임
- 전라북도의 5개년 평균 청년순이동률은 -3.08%로 타 시·도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모든 14개 시·군의 5개년 평균 청년(19~34세) 순 이동률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전주시와 군산시만 인구유출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13개 시·군은 인구유출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전총인구증감, 자연증감, 사회증감 세 요소를 고려하여 인구증감유형을 총 6가지로 구분할 경우 전라북도는 인구증가지역 1곳, 인구감소지역 13곳

- 유형 I 은 자연증감과 사회증감 모두 증가하여 총인구도 증가하는 지역으로 전북 유일하게 전주만 해당함
- 유형V, VI은 총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으로 유형 V의 경우 사회증감은 증가하지만 자연증감이 감소하여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진안이 해당하며 유형 VI의 경우 자연증감, 사회증감 모두 감소하여 총인구도 감소하는 가장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전주와 진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이에 해당함

[표 6-1] 인구증감 요인과 유형

구분	인구 증감 유형	증감요인		행정체제별		인구규모별				
		자연 증감	사회 증감	시	군	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30만 미만	30만 이상
인구증감 지역	I	+	+	1개						1개
	II	+	-							
	III	-	+							
인구감소 지역	IV	+	-							
	V	-	+		1개	1개				
	VI	-	-	5개	7개	4개		5개	3개	

주. 2016~2020년 기준임.

- 2016년 기준 인구20인미만 과소화마을(인구)은 심각 301개(전북 마을 전체의 4.3%), 경계 353개(전북 마을 전체의 5.1%)임
 - 심각등급은 고창군, 김제시, 진안군, 정읍시 순으로 높으며 경계등급은 고창군, 김제시, 진안군, 부안군 순으로 높음
- 소멸고위험지역(지방소멸지수 0.2미만에 해당)은 2000년 0개, 2005년 1개, 2010년 30개(18.9%), 2015년 92개(57.9%), 2019년 121개(76.1%)로 증가함
 - 읍과 일부 면을 제외한 121개 지역의 지방소멸 지수가 0.2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정읍시, 고창군 등 7개 시·군의 지방소멸 지수가 0.1이하인 지역이 12개로 나타남
- 행안부 기준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감소지수를 살펴보면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순으로 지수가 높게 나타나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소멸위험에 크게 요인을 미치는 특성들을 시군별로 파악하여 정책 발굴에 반영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표 6-2] 전북 시·군별 지수 점수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인구감소 외 지역	전주	조출생률	-	-
	군산	인구밀도	주간인구	5년인구증감률
	익산	인구밀도	20년인구증감률	5년인구증감률
	완주	인구밀도	주간인구	5년인구증감률
인구감소 지역	정읍	20년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남원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주간인구
	김제	20년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유소년비율
	진안	재정자립도	고령화비율	인구밀도
	무주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고령화비율
	장수	재정자립도	20년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임실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20년인구증감률
	순창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고령화비율
	고창	5년인구증감률	유소년비율	20년인구증감률
	부안	20년인구증감률	유소년비율	인구밀도·재정자립도

■ 인구감소대응 패러다임 전환

- 인위적인 인구증대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상황에서의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하고 있는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구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대부분의 인프라와 개발예산이 현재의 정주인구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에 주민등록 인구를 대체할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체류인구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인구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최근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김동영, 2020)

■ 인구정책의 3가지 쟁점

- 인구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인구규모가 감소하는 문제임. 인구위기는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면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국가나 지방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임
 - 인구감소에 의한 노동부족으로 경제활력이 둔화된다는 의견과 국가 간 자본유입에 따른 개방경제모델에서는 인구감소에 의한 소비위축과 투자여력감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두 견해는 상반되어 보이거나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적절한 인구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
- 인구밀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인구가 동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많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다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나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어섰음
 -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심화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 인구구조의 핵심은 혁신을 통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0-40대의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
 - 적절한 인구규모와 가장 창의적 연령대가 일정한 인구밀집을 이룰 때 가장 많은 혁신이 일어난다고 할 때 혁신의 거점형성이 중요함

■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비전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은 기존의 기업유치나 대규모 사업발굴 등을 통한 외생적 발전전략보다는 전북의 자체적인 자원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구의 자연스런 유입을 목표로 설정
- 또한 정주인구와 더불어 체류인구 특히 혁신적 인재의 중장기 체류를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의 비전은 “매력공간 창출과 정주인구·체류인구 유입으로 활력있는 전라북도”로 설정

■ 인구감소지역 사업 추진방향

- 지역의 사회적 활력, 경제적 활력, 공간적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첨단기술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구의 양적 확대전략이 아닌 혁신인력의 유입 즉 인구의 질적 유입이 더욱 중요
-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로컬혁신 모델 구축 필요
- 인구정책은 특정 부서의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부처 사업으로 모든 부서가 인구소멸을 막는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구정책을 ‘인구감소해소를 위한 인구증가대책’과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관리대책’으로 나누어 방향을 설정함
- 인구증가, 인구관리라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일자리·경제, 교육, 입주·정착, 의료·건강, 정주여건, 생활인구 등의 인구정책 분야와 교차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시 생애주기별 세대별 수요로 구분하여 정책을 발굴

■ 경제활력, 공간활력, 인구활력을 중심으로 추진과제 선정

-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과 체류인구 지역활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활력, 공간활력, 인구활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분야와 생애주기에 맞춰 사업발굴
- 경제활력을 위해 스마트 청년혁신타운 조성, ESG 로컬혁신경영 전문매개자 육성, 전북형 마을자치연금 마을자치연금발전소 설치운영
- 공간활력을 위해 은퇴자 교육연수센터, 이동마켓운영, 전북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인구활력을 위해 전북형 육아공동체 육성, 전북형 갭이어 전북인게벼캠퍼스 조성, 전북이주코디네이터 J링커 육성지원, 지역형 문화레지던시 마을에서 동거동락, 위케이션 밸리 조성

[표 6-3] 사업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분야	사업명	사업목표	예산				
			계	기금	도비	시군비	민간
경제 활력	스마트 청년혁신타운 조성	스마트 지원센터 조성 등	17,000	10,000	3,500	3,500	-
	ESG 로컬 혁신경영 전문매개자 육성	ESG 매개자 육성 등	1,850	650	600	600	-
	전북형 마을자치연금 “마을자치연금발전소” 설치 운영	마을자치연금 지급 등	2,000	1,000	500	500	-
소계			20,850	11,650	4,600	4,600	-
공간 활력	은퇴자 교육연수센터	은퇴자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진행 등	8,000	8,000	-	-	-
	이동마켓(이동점방) 운영	인구위기 시군 이동점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2,000	1,600	-	400	-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삼천리길 및 캠핑장 조성 등	60,000	30,000	-	30,000	-
소계			70,000	39,600	-	30,400	-
인구 활력	전북형 육아공동체 육성	결혼·임신·출산·보육 친화적사회분위기 조성 등	5,000	5,000	-	-	-
	전북형 갭이어(gap year) “전북 인 게버” 캠퍼스 조성	전북 인 게버 캠퍼스 조성 등	2,200	1,400	400	400	-
	전북이주코디네이터 J링커(Linker) 육성지원	이주코디네이터 (청년일자리) 창출 등	4,250	2,550	850	850	-
	지역형 문화레지던시 ‘마을에서 동거동락’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2,000	2,000	-	-	-
	워케이션 밸리 조성	청년일자리 창출 등	20,000	10,000	5,000	5,000	-
소계			33,450	20,950	6,250	6,250	-
합계			124,300	72,200	10,850	41,250	-

2. 정책제언

■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인구감소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감소가 주된 원인
-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보조금 및 청년유입인구 지원금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
- 보조금을 통한 지자체의 인구유입정책은 초기에 일정한 성과를 나타냈지만 점차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에 유리한 정책으로 변질
-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정책은 무한경쟁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증명 됨
 - 해남군은 출산장려금의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출산인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높이면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인구증가에도 효과가 없는 상황
- 전라북도 인구정책은 인위적인 보조금지원을 통한 인구증대정책 보다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증대하고 도민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이 중요

■ 14개 시·군 인구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수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시군별 취약한 지표가 있음
- 진안군의 경우 조출생률과 5년평균 인구증감률, 청년 순이동률은 긍정적인 편이지만 인구밀도,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등이 현저히 낮은 편
- 반면 정읍시는 고령화비율과 유소년비율은 긍정적이지만 조출생률과 20년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음

- 전라북도 전체의 사업은 물론 14개 시군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시군 인구정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인구감소대응 모니터링체계 구축 필요
- 행안부의 컨설팅과 별개로 14개시군의 사업관리는 물론 향후 성과를 공유하여 성공모델의 확산 등을 위한 평가체계와 성과확산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관계인구화 및 이주정책 추진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
-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는 원래 고향이거나 새로운 고향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이 선택한 고향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와 기부자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인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 관계인구란 정주인구나 교류인구와는 달리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로 지역 외 인재와 계속적이고 복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인재와 고향과의 관련성을 심화·지속시켜 장기적으로 이주와 정주를 촉진(일본 총무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재인용)
- 일본은 고향납세와 연계하여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추진 중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주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를 ‘고향미 래투자가’로 생각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맺는 활동 추진
 - 기부자가 고향납세 지역에 방문하거나 이주를 계획하면 지자체는 이들에게 이주와 정주를 위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이주·정주사업 촉진
-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라북도와 기초지자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이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고향이주 희망자관리와 중장기적 이주지원 필요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민정 & 박선미. (2020).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 2020-02호. 서울디지털재단.
- 김동영 & 김형오. (2018).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이슈브리핑 165호. 전북연구원
- 김민영 & 백준봉. (2021). 국내 갭이어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고용이슈리포트 2021-07. 경기도일자리재단
- 김태환, 김은란, 이차희, 남성우, 표희진 & 박미래. (2020).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제1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이성재 & 한국환. (2020).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유형별 발전전략 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601>
- 이용우, 손학기, 김선희, 김동한, 임상연, 윤영모, 임지영, 강은진 & 박정호. (2014). 미래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와 대응전략-. 국토연구원.
- 장성화, 오병록 & 김귀진. (2019). 공공 유희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05>
-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제작 연구용역. 전북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1). 지방소멸대응대책 수립연구. 행정안전부.
- 황영모 & 배균기. (2021).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이슈브리핑 254호.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07>
- 뉴거버넌스 패러다임 행정, 김포시 '스마트타운 플랫폼'으로 구축. (2014.07.22.). [일간경기].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2>.
-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마을이다 <4> 태안 만수동마을 어촌계. (2020.12.30.).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868>.
- 완주문화재단. (2019). 2019 완주한달살기 이야기. 완주문화재단.
-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18). 유인도서현황.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도시계획현황통계.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 청년마을 홈페이지. <https://localcity.modoo.at/>
전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jeonbuk.go.kr/>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홈페이지. www.smartcity.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www.korea.kr/
아웃도어 아일랜드 홈페이지. <https://outdoorvillage.kr/>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포털사이트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
sousaku-mori 홈페이지. <https://www.sousaku-mori.gr.jp/>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https://www.anyang.go.kr/youth/contents.do?key=3643>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www.rsis.kr/
통계청. www.kosis.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

A Study on Strategies and Support Measures for Population Reduction Areas

Dong Young Kim · Suji Kim · Gi Hong Back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

■ Study objectives

- Since the local extinction prevention fund is set to be differentially distributed to designated population reduction areas, a project plan that considers regional characteristics needs to be established based on an in-depth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decrease in population in Jeollabuk-do (Jeonbuk).
-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facing decreased population as an ongoing risk, the plan should focus on projects directly related to the efforts to address this crisis, such as encouraging population inflow and suppressing population outflow. In contrast,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with a relatively low risk of population decline, the plan should focus on projects for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satisfaction and population vitality.

■ Research methods

- Factual research and analysis method: (literature review) Review of comparable studies and precedent studies on demographic trend analysis and (research method) Index-specific research using Statistics Korea'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

- Expert advisory method: Oper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 On-site case study: Visit to case areas in which the policy to address the population decline issue or encourage population inflow has been implemented.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Vision of strategic measures against population reduction areas

- The vision of the strategic measures against population reduction areas in Jeonbuk is as follows: "Revitalize Jeollabuk-do by creating appealing places and attracting settled and transient populations."

■ Selection of project centered on economic, spatial, and population vitality

-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settled and transient populations and enhancing the regional vitality, the project categories are subdivided into economic, spatial, and population vitality, and for each category, suitable projects are developed in line with the sector and lifecycle.
- For economic vitality, create a smart youth innovation town, nurture professional intermediaries specializing in ESG local innovative management, and install and operate Jeonbuk's unique village self-governed pension powerhouses.
- For spatial vitality, operate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s for retirees and mobile markets and build Jeonbuk Eco Camping Samcheolligil.
- For population vitality, develop a unique childcare community in Jeonbuk, create a one-of-a-kind gap-year campus called 'Jeonbuk-in-gebyeo', train and support a Jeonbuk migration coordinator called 'J-linker', and build a regional cultural residence named "Live in and Enjoy a Village Together" and a workation valley.

■ Policy suggestion

- [Focus on strengthening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providing subsidies] The major causes of population decline in local governments are the decrease in the natural population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the decrease in the social population due to population outflow. The population policy of Jeonbuk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regional competitiveness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of provincial residents across all generations and contribute to their stable settlement rather than providing subsidies to attract population.
-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for population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for 14 cities and counties] The analysis of the indices indicating the decrease in the provincial population in Jeonbuk shows natural and social population decline as a whole, but the worst indicators of each city and county differ. Thus, a population reduction monitoring system should be built at the provincial level so that population policies can be driven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14 cities and counties and the performance of population policies in each city and county as well as overall projects in Jeonbuk can be managed.
- [Acceptance of related population linked to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and enforcement of immigration policy]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 (Short name: The Hometown Love Donation Act)” was enacted on October 19, 2021, and it will be implemented on January 1, 2023. In collecting applicants for regional migration, preference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pay hometown love donations to Jeonbuk and its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those who wish to move to Jeonbuk and provide mid- to long-term migration support.

Key Words

Local wholesale markets,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s,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정책연구 2022-34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2년 6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96-4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2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신산업 생태계 및 산업기술지도 분석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북지역경기지수개발 연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도시 회복력 관점의 전라북도 주거지 특성 분석 연구
2022 전북형 행복지표 실태조사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 방향
전라북도 스마트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기획연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
전북의 대중국 초광역협력 방안 연구
전라북도 주력산업 경쟁력 진단과 중장기 발전방향: 신재생에너지산업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구상 연구
전라북도의 대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탐색 연구

정책연구

전라북도 항만물류서비스 특성화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수계기금 지원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연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기업 참여방안 연구
전라북도 인삼산업 육성정책 기본방안
전라북도 바이오화학산업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전기차충전소 보급 및 관리방안 연구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전라북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선방안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자립 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지방도매시장 농산물 유통혁신 전략화 방안 연구
전북여성인재 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연구
전라북도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방안
전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